

신학석사학위논문

개혁주의 영성과 교회성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formed Spirituality and
Church Growth

2003년

고신대학교 선교대학원

교회성장학전공

윤 희 정

신학석사학위논문

개혁주의 영성과 교회성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formed Spirituality and
Church Growth

지도교수 임 영 호

이 논문을 신학석사학위(Th. M)논문으로 제출함

고신대학교 선교대학원 선교학과

윤 희 정

윤희정의 신학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_____(인)

위원 _____(인)

위원 _____(인)

고신대학교 선교대학원

2003년

감사의 글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전 15:10

부족한 사람을 통해 영광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학기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고 개인적으로 유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가르쳐주신 선교대학원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히 부족한 논문을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해 지도해주신 교수님들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학업을 시작하도록 허락하신 고성제일교회 나종석 목사님과 논문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영광교회 김철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공부를 하도록 인도해주신 나의 영적 멘토이신 아버지와 재정적인 지원과 기도로 도와 주신 양가의 부모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부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격려하고 지켜준 나의 가장 소중한 아내에게 감사드립니다.

필자의 부족한 논문을 통하여 개혁주의 영성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더 좋은 학문 연구가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의미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제 2 장 영성이란 무엇인가	9
제 1 절 영성의 정의 - 언어적 고찰	9
제 2 절 성경적 의미의 영성	12
2-1 구약에서의 영성	12
2-2 신약에서의 영성	14
제 3 절 개혁주의적인 의미의 영성	17
제 3 장 기독교 영성의 역사	20
제 1 절 고대교회의 영성	20
1-1 초대교회의 영성	20
1-2 교부시대의 영성	23
제 2 절 중세교회의 영성	24
제 3 절 종교개혁의 영성	25
제 4 절 근대교회의 영성	28

제 4 장 개혁주의 영성 30

제 1 절 개혁주의의 영성의 특징 30

1-1 은총의 신앙에 입각한 영성 30

1-2 공동체 신앙의 영성 32

1-3 감성과 이성의 균형잡힌 영성 34

1-4 경건에 기초한 지성의 영성 35

1-5 현실세계에 대한 긍정의 영성 38

1-6 초월적 영성에 근거한 내재적 영성 40

1-7 세계내적 검소(frugality)의 영성 42

1-8 그리스도를 닮는 성화의 영성 44

1-9 현실을 변화시키는 의로운 영성 46

제 2 절 개혁주의 영성의 미래 : 도전 47

2-1 종교다원주의와 범종교적 영성 48

2-2 뉴에이지 운동과 혼합적 영성 49

제 3 절 대안 : 개혁주의 세계관 54

3-1 세계관의 필요성 54

3-1-1 세계관의 개념 54

3-1-2 세계관과 영성 56

제 5 장 개혁주의 영성과 교회성장과의 관계 57

제 1 절 상관성의 이유 57

제 2 절 교회성장의 정의 58

제 3 절 한국에서의 교회성장	59
제 4 절 교회성장에 대한 개혁교회의 이해	61
제 5 절 교회성장을 위한 개혁주의 영성안에 있는 요소들	62
5-1 평신도를 깨움	62
5-2 교리적인 가르침의 부활	63
5-3 설교사역에 대한 최상의 강도	64
5-4 기도를 통한 교회성장	66
5-5 선교를 통한 교회성장	69
제 6 장 교회성장을 위한 제언	73
제 7 장 결 론	75
참고문헌	79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의미

개신교인들이 영성이라는 주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그들이 직접적인 종교적 체험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종교적 경험을 갈망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현대인들의 삶이 무미건조해지고, 그들의 정열도 목적의식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일상적인 종교 관습들만으로는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경험적 관계와 직접적인 인식에 기초한 신앙을 추구한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영성의 중요성은 대단히 크다. 개인의 신앙생활이나 교회의 성장에 있어서 영성은 아주 필수적이다. 1980년대에도 한국교회의 놀라운 성장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영성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영성이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영적인 갈급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것의 원인으로서는 문화적, 개인적, 영적 요인을 들 수 있다. 먼저 문화적으로 이 시대는 계몽주의 이후로 이성주의적 세계관에 더욱 몰입하게 되고, 기술의 진보로 사람들을 기계화, 원자화시키고 있다. 물질주의적 문화는 우리를 피상적인 것에 가치를 두게 만들고 있다. 또한 개인적, 영적 요인으로서는 사람들이 급속히 변화하는 기술문명 사회에서 반대급부로 초월적 실재에 대한 종교적인 관심이 점증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 수많은 종교인들이 이제는 간접적인 신앙보다는 직접적인 신앙체험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이러한 영적 갈급함의 근본원인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데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가 21세기를 맞이했다. 지난 선교 1세기를 통해 세계에 유래 없는 성장을 이룩한 한국교회는 이제 세계교회 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위치에 서 있다. 한국교회는 해방 이후 80년대까지 매 10년마다 2배로 성장하여 기독교인이 전 인구의 25%에 해당하리만큼 성장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한국의 현대정치, 사회, 교육 부문에 끼친 영향은 타종교에 비해 월등하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세계를 위한 교회가 되기에는 너무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같다.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이미지에 비하여 한국교회는 풀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교회이기도 하다. 수준미달의 목회자 양성, 분열과 대립의 역사, 열광적인 기복신앙, 다수의 명목상의 기독교인 등, 더군다나 아직도 신학적으로 미성숙한 한국교회는 서구신학을 유행에 따라 무분별하게 수용함으로 교회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심지어 1980년 중반 이후 90년대에 들어와서는 한국교회가 자랑하던 교회의 성장마저 둔화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피상적이지만 이러한 표면적 위기는 여러 측면에서 질적 위기와 맞물려 있음이 아울러 지적되어지고 있다. 여기서 질적 위기란 신자 개개인의 신앙성숙에 관한 것으로서 신앙성숙을 신자 개인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와 그 결과로 나타나는 총체적인 삶으로 이해할 때, 질적 위기란 바로 영성의 위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근래에 들어오면서 한국교회의 관심은 ‘영성’이라는

용어에 몰리고 있다. 예를 들면 신앙수련회는 이제 ‘영성수련회’로 부르고 있다. ‘영성훈련,’ ‘영성세미나’ 같은 단어들을 곳곳에서 접하게 된다. 또한 영성에 대한 도서도 매달 새로이 출판되고 있다. 신학교에서는 ‘영성신학’이라는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또한 ‘영성훈련’이라는 말은 기존의 교회의 구조에 변화를 주어야 하며 새로운 ‘영성훈련’을 시행해야 한다는 모종의 압력과 재촉으로 개인이나 공동체를 불안하게 하기도 한다.

이처럼 인기 있는 ‘영성’이라는 단어는 오늘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고, 종교마저 초월한 광의의 언어가 되었다. 카톨릭뿐 아니라 진보주의적 개신교나 복음주의, 개혁주의 입장을 표명하는 교회조차 ‘영성’을 새로운 신앙의 가치 기준으로 여기고 있다. 흔히 오늘날 교회들은 ‘영성이 부족하다,’ ‘영성이 약하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개인의 신앙이나 공동체의 신앙을 평가한다.

물론 ‘영성’(spirituality)은 새로운 말이 아니다. 영성은 일반적으로 터툴리안으로부터 시작하여 중세를 거쳐 종교개혁과 오늘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마다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어 왔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사용하는 ‘영성’은 구시대의 어느 ‘영성’과도 구분되는 새로운 것이다.

혹자는 이것을 ‘영성의 재발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의견에 따르면 새로운 영성은 단순한 ‘영성’만을 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건’과 같은 전통적인 용어로는 온전히 표현할 수 없는 새롭고 포괄적인 그 무엇을 재발견하는 새로운 용어의 탄생이라고 제시하고 있다.¹⁾ 그러나 재발견된 영성이 과연 경건을 뛰어넘는 더 성경적인 용어인지

1) 한정애, “교회사와 영성” 「기독교신학과 영성」 협성신학연구소 편, (서울: 솔로몬, 1995), p.15.

는 의구심이 든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이 단어가 듣기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여기는 것 같다. 더 심각한 것은 영성이라는 이름 아래 ‘게시의존신앙’(啓示依存信仰)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다. 즉 오늘날 ‘영성’은 성경적이기보다는 다양한 현대사상의 영향하에 모호하고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듯 하다. 즉 ‘현대영성’이 추구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경건이나 영적인 삶과는 거리가 먼 종교다원주의의 영향에 따른 범종교적 영성, 뉴에이지 운동에 영향을 받은 혼합주의 영성, 그리고 문화사상적 해체주의에 따른 세속주의적 영성이라고 보여진다.

실제로 ‘영성’에 대한 새로운 논의는 타종교와의 대화를 모색하는데 시발점이 된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황창기 교수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영성이란 말은 1960년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제2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나온 말이다. 당시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가 종래의 가치관이 허물어지고 각종 범죄 및 엉뚱한 사회 현상에 따른 급격한 변화로 교회의 사회에 대한 새로운 책임감과 영적 각성을 통감하는 분위기와 맞물려 ‘영성’이란 말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²⁾

또한 여기서 발원한 ‘영성’은 개신교 WCC계열의 진보주의적 학자들에 의해 주창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오늘날 주창되는 ‘영성’속에는 모종의 타협과 불순한 이유가 담겨있다. 또한 이와는 반대로 한쪽에서는 ‘영성’의 부흥을 타고 중세 신비적, 수도적 영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이 어렵게 회복시킨 기독교 영성이 다시 한번 시대의 변화기를 맞아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다.

2) 황창기, “신약 ‘경건’의 기독교론적 이해” 「고신신학 2」 (부산:고신신학회,2000), p. 17.

또한 개혁주의 입장에서 영성을 연구하는 이유는 기독교회사에서 영성에 대한 추구가 치열하게 나타났던 시기는 모두 새로운 시기가 도래하는 시기들이었다는 데 있다. 예를 들면 3, 4세기경 게르만의 침입으로 헬레니즘 사회가 혼돈에 빠지고 그 다음 게르만의 프랑크 제국등이 세워져 유럽사회에 새로운 질서가 재편되는 무렵에 성 안토니우스나 성 파코미우스, 성 바질 등은 사막에 들어가서 치열하게 영성을 탐구하여 나중에 베네딕트 수도원의 기초를 닦았으며, 11, 12세기 경 유럽 사회 전체가 십자군 전쟁으로 아노미 상태에 빠진 다음 교황권에 기초한 중세제국이 세워지는 무렵에 씨토 수도원이 건립되고 성 프란티스꼬나 성 도미니꼬 탁발승단이 생겨나 가난과 정결과 순명의 의미를 새롭게 해 주었다. 그리고 마틴 루터나 존 칼빈 등 종교개혁자나 성 이그나티우스 로욜라, 십자가의 성 요한 등 카톨릭의 개혁자들이 나타나 영성의 문제를 논한 것도 16세기 종교개혁으로 기독교 제국이 로마 카톨릭 세계와 개신교 세계로 재편되는 무렵이었다.³⁾

21세기를 들어서면서 세계는 몸살을 앓고 있다. 환경과 인권, 자원과 기근, 전쟁과 평화가 공존하며, 가치관의 혼란과 세속적 종말사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우리가 맞이한 21세기 사회는 종교 혼란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교회는 ‘개혁주의 영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성경적인 올바른 영성을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작업에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교회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범세계적 종교 속에 흡수되어 버릴 것이다.

이 논문은 개혁주의 전통에서 주장되어온 바른 영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작은 노력이다. 즉 오늘날 표현되는 ‘영성’이라는 단어보다는 개혁주의가 표방하고 사용해온 ‘경건’이 성경적으로 더 적절하고 구체적인

3) Ibid., pp.5-6.

용어임을 드러내고, 이러한 경건에 기초하여 개혁주의자들이 제시한 영성이야말로 가장 영적이며, 온전한 기독교 영성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경건을 위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경건의 기초가 되는 세계관의 확립이기에 영성의 기초로서의 성경적인 세계관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러한 영성이 침체된 교회로 하여금 새로운 활기를 얻고 소생하게 하며, 약화된 교인들의 신앙이 강한 힘을 얻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므로 교회가 놀라운 성장의 모습을 보여 온 것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영성은 교회성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영성과 교회성장과는 유리시킬 수 없는 목회의 본질이라는 차원에서 이 주제에 대한 연구는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개혁주의의 영성과 교회성장의 관계성을 고찰하면서 한국에서의 교회성장의 현실과 교회성장에 대한 개혁교회의 이해 그리고 교회성장을 위한 개혁주의 영성 안에 있는 요소들을 살펴 보면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논문은 오늘날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영성’을 비판하고 개혁주의 전통의 경건을 다시 강조하는데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건의 회복을 위해 개혁주의 입장에서 통합되고 균형잡힌 세계관이 필요함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로 영성이란 무엇인가를 살필 것이다. 현대의 다

양한 영성신학자들의 견해를 통해 그들이 주장하는 ‘현대영성’의 범위와 다양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오늘날 ‘영성’은 어떤 구체성을 띠는 대신에 포괄적이고 기독교 안에서의 무조건적인 통합을 시도하려는 시도임을 이러한 다양한 정의를 통해 발견하게 된다. 또한 개혁주의 입장에서 보는 영성의 정의를 제시함으로써 개혁주의 영성과 경건이 갖는 유사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둘째로는 지난 과거의 교회사 속에 나타난 영성을 시대에 따라 각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성경에서 영성에 대한 지침을 발견할 수 있는지 살펴본 후 고대교회와 중세교회 그리고 종교개혁 그리고 근대교회에 이르는 교회사를 통해 영성이라는 용어와 사상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로는 개혁주의가 가진 신학적 입장의 ‘영성’의 특징을 나열해 봄으로써 ‘경건’의 완성으로서의 영성을 제시한 후 앞으로 개혁주의 교회에 도전이 될 종교다원주의와 뉴에이지 운동을 통해 그 문제점과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개혁주의 영성의 기초작업을 위한 세계관의 시급한 필요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개혁주의 영성과 교회성장과의 관계성을 논하면서 개혁주의 영성과 교회성장은 서로 밀접한 관계성이 있다는 상관성의 이유를 밝히면서 교회성장의 정의와 한국에서의 교회성장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교회성장에 대한 개혁교회의 이해와 교회성장을 위한 개혁주의 영성안에 있는 요소들을 살펴봄으로써 마지막으로 교회성장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주제범위가 워낙 방대한지라 여러 가지면에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계속적으로 개혁주의 영성에 대해서 보다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서 개혁주의 안에 있는 영성의 풍부한 유산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이 논문이 개혁주의 영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과 본인에게 하나의 디딤돌

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

제 2 장 영성이란 무엇인가

제 1 절 영성의 정의 - 언어적 고찰

‘영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영성’(靈性)이란 말은 영어, ‘spirituality’를 번역한 말이다. 그러나 구미 학자들조차도 이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만족할만한 설명을 못하고 있다. 이처럼 ‘영성’에 대한 정의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안영권 교수는 그 첫 번째 이유를 “분명한 이해 없이 애매모호하게, 그리고 또한 잘못 사용”하는데 있다고 보았다.⁴⁾ 송인규 역시 ‘영성’ 이해의 어려움이 지극히 다양한 사용 범위에 있음을 지적한다.

이 말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때 그 경우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가장 빈번히 사용된 개념이 의무 없이 다른 경우에도 적용되거나, 사실은 별도로 생각해야 할 영역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수가 많이 있다.⁵⁾

따라서 영문 ‘spirituality’ ‘spiritual’은 ‘영성,’ ‘영적,’ ‘신령한,’ ‘거룩한,’ ‘은혜로운,’ ‘영력(靈力)있는,’ ‘믿음이 좋은,’ 등으로 혼란스럽게 번역되고 있다는 것이다.⁶⁾

그러나 오늘날 사용되는 ‘영성’은 이러한 일반적 설명을 뛰어 넘는다. 그래서 넬슨 테일러(Nelson Thayer)는 “영성이란 대단히 모호한 주

4) 안영권, “기독교 영성이란 무엇인가” 『목회와 신학』 (서울: 두란노서원, 1999년 10월호), p. 38.

5) 송인규, 「영성에의 추구」 (서울: IVP, 1991), p. 7.

6) Ibid., pp. 4-5.

제이다. 그렇지만 영성은 우리가 존재하는데 있어서 매우 본질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영성에 대한 정의를 쉽게 단정지어서는 안된다”⁷⁾고 하였다.

두번째 이유는 ‘영성’이라는 말이 구약이나 복음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그야말로 오순절 이후 생긴 단어라는데 있다.⁸⁾ 즉 영성은 성경적 용어로서의 표준이 없이 시대를 지나오면서 다양한 명칭으로 표현되고 있다. 즉 ‘영성’에 대한 이해가 시대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영성이란 단어를 구미 유럽에서 맨 처음 사용한 사람은 1583년 영국인 필립 스투베스(Philip Stubbes)였다. 그는 자신의 책 「Anatomie of Abuses」에서 영국의 국교회의 신부들이 자신들의 지위와 권위를 함부로 남용하는 것을 반박하면서, ‘성직자’(clergy)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하다. 즉 직분에 성실하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그 영성의 남용들과 부패함”이라고 공박하였다.⁹⁾

세 번째 이유는 영성은 여러 종교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영성’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먼저 사용한 용어이다. 그러나 오늘날 영성은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 모두 사용하고 있다.

‘영성’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지, 또는 누구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의 정신을 자기의 정신으로 내면화시켜서, 소크라테스의 정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스토아 철학자들은 스토아주의 영성이라고 부른다. 이처럼

7) Nelson S. T. Thayer, 「영성과 현대목회」 이윤복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2), p. 11.

8) 송인규, *op. cit.*, p. 16.

9) 김재성, 「칼빈과 개혁신학의 기초」 (서울: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1997), p. 252.

영성이란 용어는 자기가 보기에 가장 이상적인 정신을 자기의 정신으로 받아들여 그 정신을 실천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거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개신교는 이 용어에 익숙하지 않다. 그것은 개신교에서 전통적으로 쓰여온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신교에서는 지금부터 겨우 30여년 전부터 영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¹⁰⁾ 더욱이 어떤 기독교인들은 ‘영성’이라는 말을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본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자력’(自力) 구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혁주의나 복음주의 씨클에 있는 교회들은 이 용어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였고, ‘경건’(picty) 혹은 ‘헌신’(devotion)이라는 말로 그 가치를 대신해 왔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경건’이라는 용어대신에 ‘영성’으로 바뀌면서 중대한 문제가 생겼다. 그것은 ‘영성’이 신비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성령론이 되어버린 점이다. 따라서 개혁교회들은 ‘영성’의 의미를 다시 정립하지 않는다면 ‘경건’이해에 대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¹¹⁾

그래서 개혁주의 내에는 경건을 말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나, 삶의 문제보다는 신학적 전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교회에서는 다시 영성이란 용어를 통해 기독교를 이해하고 소개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10) Bradley P. Holt, 「기독교 영성사」 엄성옥 역, (서울: 은성, 1996), p. 21.

11) 황창기, op. cit., p. 22.

제 2 절 성경적 의미의 영성

2-1 구약에서의 영성

구약성경에서 ‘영성’(Spirituality)이라는 용어는 나타나지 않지만, 구약성경 역시 ‘영’과 관련된 용어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약에 ‘영’을 의미하는 낱말 ‘루아흐’(רוּחַ)는 히브리어로는 378회 나오고, 아람어로는 다니엘서에만 나타나는데 여기서 총 11회 언급된다.¹²⁾

히브리어의 ‘루아흐’(רוּחַ)는 대개 ‘바람’, ‘호흡’, ‘공기’, ‘영’등으로 번역되는데 이 단어가 하나님과 관련되어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영,’ 혹은 ‘신적인 영’으로 이해된다. 편의상 구약의 ‘루아흐’를 바람으로서의 루아흐, 사람의 루아흐, 하나님의 루아흐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러한 루아흐의 세속적 의미와 신학적 의미는 정확히 구분되기 어렵다.¹³⁾

결과적으로 구약의 ‘영’(루아흐)이라는 단어에서 영성에 대한 직접적인 지침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초월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의 ‘루아흐’는 주로 하나님과 관련되어 나타나며, 이 경우 그 단어는 ‘자연을 포함한 인간 영역 밖의 모든 사물’을 지칭하기도 한다. 이것은 자연과 초자연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인간적인 요소와 비인간적인 요소를 구별하는 히브리인의 사상에서 연유한다. 따라서 ‘이상한 영’(extraneous spirit)혹은 ‘사악한 영’(evil spirit)에 관련될 때도 이 단어는 사용된다(삼상 16:16; 18:10; 사 9:23).

12) 차준희, “구약의 영 이해” 「성경과 신학」 제20권 (1996년 10월호), p. 360.

13) Ibid., p. 387.

히브리어 루아흐는 종교인의 '영성'을 충분히 설명해 주지 못한다. 단지 구약성경에 나타난 '영'의 개념과 관련지어 생각할 때, 구약의 영성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라는 다소 초월적이며 애매한 한계성을 지닌다. 여기서의 초월성은 인간적인 요소 너머에 있는 모든 것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¹⁴⁾

더 나아가 때로 '루아흐'는 '인간의 슬픔', '분냄', '고통' 등의 의미와 관련되어 사용된다. 이 단어는 후기에 와서는 지식체계(organ of knowledge)로 간주되기도 했으며,¹⁵⁾ 인간의 의지(willing spirit)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했다.¹⁶⁾ 또한 '루아흐'는 비물질적인 차원에서의 인간의 내적 의식(consciousness)과 관련하여 사용된다.¹⁷⁾ 그러나 히브리어의 '루아흐'에서 인간의 경건한 종교행위나 신비적 금욕주의와 같은 기독교 전통에서의 영성개념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넬슨 타이어(Nelson S. T. Thayer)는 '루아흐'를 통하여 적어도 다음의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여기서(루아흐) 다루려고 하는 주안점은 초월성 역동성에 대해서 응답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히브리어의 '루아흐' 영개념에서 제시되었다는 점이다.¹⁸⁾

구약의 영성은 초월적 세계와 현실적 세계의 교량적 역할을 하는 종교성이 될 것이다. 즉 구약성경의 '루아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련을 맺음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능력과 삶의 영역을 암시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다.

14) 박종수, "불교의 선과 기독교의 영성" 「종교와 영성」 (서울: 도서출판 한들, 1998), p. 78.

15) 겔 11:5; 20:32; 대상 28:12; 시 77:6

16) 시 51:12,14; 출 35:21; 참조, 겔 11:19; 시 32:2; 51:17; 사 57:15; 잠 16:18 이하

17) 사 26:9; 잠 16:32; 단 5:20; 시 32:2

18) Nelson S. T. Thayer, op. cit., p. 55.

이러한 영 이해에 기초한 구약성서의 영성은 영/육 합일체로서 인간이 하나님과 갖는 교제(communion), 인간의 존재 전 영역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encounter) 등으로 구약성서속에 표현되어 나타난다. 19)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실재와 활동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위대한 종교적 인물들에게 스스로를 계시하신 유일무이한 초자연적 존재로서 우주의 주이시며, 구원자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려고 한다. 그러므로 이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구약성경의 영성이해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20)

2-2 신약에서의 영성

신약의 영성에 있어서 구심점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집약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신약의 영성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체험, 그리고 제자들의 부활체험과 초대 교회의 성령강림 사건에 있다.

신약성경에 나타난 영성은 일반적으로 ‘영’(spirit)으로 번역되는 ‘프뉴마’(πνευμα)의 용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푸쉬케’(ψυχη; 생명 혹은 영혼)은 ‘프뉴마’(영)와 ‘사룩스’(σαρξ;몸)의 결합에 의해 존재한다. 그러나 프뉴마는 대체로 영적존재를 의미하며 성령(Holy Spirit)이나 악령(evil ghost) 모두를 포함한다. 프뉴마는 비물질적이며 심리적인 상태를 나타내며, 가끔 내적인 존재를 지시한다.21) 동시에 프뉴마는 인간의 강한 욕망을 표현하며,22) 내적인 결단을 보여주기도 한다.23) 그러나 이러한 용

19) 박해령, “구약성서의 영성이해” 「기독교신학과 영성」 (서울: 솔로몬, 1995), p. 46.

20) Ibid.

21) 막 2:8; 행 17:16; 롬 1:4; 고전 2:11; 5:5 골 2:5

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영성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 못한다. 오히려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5절의 ‘프뉴마티코스’(πνευματικός; one who is spiritual)가 기독교 전통에서의 영성을 비교적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πνευματικῶς)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πνευματικός)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나라

여기서 영적인 사람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초월적 영성을 지닌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일(성령의 사역)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다.

또한 프뉴마가 삶속에서 종교적 열정과 관련되어 사용된 흔적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열심히(spiritually) 주를 섬기는 일”(롬 12:11)과 “성령의 일이 곧 신령한 것”(πνευματικός)이라는 점(고전 2:13), 그리고 “신령한 자들(πνευματικοί)은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다”(갈 6:1)는 사용은 모두 프뉴마가 열정적인 신앙생활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고전 14:1).

에베소서 1장 3절은 “신령한 복이 하늘에 속한 것”으로 소개함으로써 ‘프뉴마’의 속성은 지상의 것이 아닌 초월적 세계에 관한 것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에베소서 5장 19절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것을 외치면서 ‘프뉴마’는 초월적인 존재(그리스도)와 인간 사이의 영적인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와 같이 ‘프뉴마’는 초월적인 속성을 전제로 하며 동시에 세상에서

22) 행 18:25

23) 눅 21:14; 행 5:4

의 종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용어는 인간의 종교활동이나 신과 인간 사이의 교통에 관련되어 등장할 뿐 형식적인 사회 참여나 삶속에서의 적극적인 종교활동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이런 이유로 해서 초대 교회와 중세교회에서의 기독교 영성운동이 개인적인 신비체험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이것은 그동안 기독교 공동체에서 성령운동과 관련하여 개인의 구원체험이 곧 영성 운동의 일환으로 간주된 결과를 초래한 근거가 되기도 한다.

복음서들은 하나님의 영이 예수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일찍부터 언급하고 있다. 예수의 신앙체험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첫째로 요한의 세례기사와 광야에서의 40일간 금식하신 일에 대해서 영성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요단강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충만한 세례를 통하여 예수는 성별 되었다. 이때 영적인 능력을 체험했다고 보며 마가복음에는 “예수에게”(to him), 마태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위에”(on him), 마가는 세심하게 예수 속에 들어가 머무는 표현을 암시한다. 이 세례를 받으신 후 순간적이며 영적인 능력의 보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기간 동안 능력의 원천이 되었다.²⁴⁾

둘째로, 예수의 신앙체험은 하나님의 아들(The Son of God)이라고 하는 의식인데(막 1:11) 마가복음에서 보면 예수의 체험으로 그의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을 볼 수 있다. 예수의 교훈, 선교, 사상 그리고 행동은 예수와 하나님의 영적 교제이며, 외적인 표현이기도 하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기도생활을 통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계속하면서 내면의 영성을 개발하였다.²⁵⁾

또한 예수님의 기도속에 하나님을 아바(Abba)로 부른 것은 하나님

24) 문상희, 「목회의 전문화와 영성」 (서울: 연세대출판부, 1984), p. 180.

25) Ibid., p. 186.

과 영적인 교제로서 인격적인 관계에 있으며, 광야에서 40일간의 금식은 영성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모든 악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복음서들은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 인간의 영은 하나님께 저항할 수도, 하나님을 갈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천명한다.²⁶⁾ 성령안에서의 삶에 대한 감동적인 표현은 다락방에서의 강론에 대한 요한의 기사에서 나온다. 이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임박한 죽음에 대하여 제자들을 준비시켰다. 후에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었고,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성령충만한 공동체가 되었다.

영성은 하나님 아래서의 삶과 관련이 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외형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계시되고 성령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래의 삶과 관계가 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라 본받는 삶을 살았으며, 또한 주의 성령은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초대교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예수님은 경건한 자로 묘사되고 있으며, 그리스도인의 경건이야말로 영성의 최고의 표현이다.

제 3 절 개혁주의적인 의미의 영성

‘개혁주의 영성’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개혁주의적’이란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의해 규정될 것이다. 개혁주의의 의미를 종교개혁 신앙의 3대 ‘솔라’(sola)에서 찾는다. 곧 “오직 성경으

26) Iris. V. Cully, 「영적성장을 위한 교육」 오성춘, 이기문, 유영모 역, (서울: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출판부, 1986), p. 90.

로”(solascriptura), “오직 은혜로”(sola gratia), “오직 믿음으로”(sola fide)가 종교개혁 신앙의 특징이다.

개혁주의 전통에서 ‘영성’을 의미하는 단어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 것은 ‘경건’이 사용되어 왔다.²⁷⁾ 따라서 개혁주의 경건은 성경적 경건이다. 그러나 이로써 끝나지 않는다. 개혁주의 경건은 성경에 근거하되, 그것이 개혁주의 신앙고백들로 표현된 것을 존중한다. 그래서 개혁주의 경건은 성경과 개혁교회의 신앙고백 문서들과 개혁주의 전통을 토대로 한 경건을 의미한다고 본다.

개혁주의에 선두주자는 역시 칼빈이다. 칼빈을 이해하지 않고서 개혁주의를 논할 수는 없다. 계속적으로 연구되겠지만 칼빈에 있어서 경건은 “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데서 비롯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²⁸⁾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

황창기 교수는 경건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다.

경건(godliness, piety)이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다. 이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적 응답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적 반응인데 이는 신자가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하여 규정된다. 그리고 진정한 ‘경건’은 믿음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원하시는 분으로서 높이고 존경하는 매일의 행위(conduct)이다.²⁹⁾

따라서 개혁주의 영성의 주요부분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우리

27) 하워드 라이스, 「개혁주의 영성」 황성철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p. 58.

28) Ibid.

29) 황창기, op. cit., pp. 16-17.

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사람이 반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혁주의 영성의 참된 목적은 우리의 생활 전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에 있다. 우리의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며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존중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반응이다.³⁰⁾

30) 하워드 라이스, *op. cit.*, p. 60.

제 3 장 기독교 영성의 역사

본 장에서는 영성의 발전 과정을 역사적 맥락에서 찾아보려고 한다. 초대교회로부터 교부시대, 중세교회, 종교개혁기, 그리고 근대교회까지의 영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 1 절 고대교회의 영성

고대 기독교 시대는 30년경부터 콘스탄틴 대제(Constantinus I, 280년경-337)하에서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로 공인받을 때 (313년)까지로 이 시기에 예루살렘에서는 원시적 공동체인 최초의 구체적인 교회가 나타난다.

1-1 초대교회의 영성

초대교회의 영성은 성령의 직접적 사역으로 시작되었다. 초대교회의 영성은 예수의 행적과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초대교회는 영성의 훈련과 생활이 잘 조화된 삶을 살았다. 이 생활은 구체적으로는 기도와 성경연구, 그리고 사랑의 모임이었다.

- ① 말씀공부(행 2:42, 3:12, 고전 11:23, 15:11)
- ② 합심기도(행 1:14, 2:4, 3:11, 4:32)
- ③ 교제(행 2:42, 46, 3:11, 4:32)
- ④ 청빈, 구제, 봉사(행 2:44-45, 4:32-37, 6:1-6)
- ⑤ 금식(행 13:2-3, 14:23)
- ⑥ 복음전도(행 1:8, 2:4, 3:11, 4:31)
- ⑦ 섬김(고후 4:5)
- ⑧ 병자

들을 위한 봉사(행 3:1-9, 5:12-16, 19:11-12)

사실 초대교회의 영성은 플라톤주의적 영향과 영지주의와의 투쟁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다. 플라톤 주의의 흐름은 영혼이 영원한 세계로부터 내려와서 일시적으로 또한 임시적으로 우리의 육체와 관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몸이 죽으면 영혼은 영원한 자신의 세계로 돌아간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사상은 기독교 이전부터 있었으며, 초기 기독교회도 어느 정도는 이러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비기독교적 입장에 대해 지혜롭게 주의하면서 통전적인 기독교의 영성을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사도바울과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죽을때까지 예수의 흔적과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였다.

초대교회의 영성을 살펴봄에 있어 바울과 요한의 영성을 들 수 있다. 다이쓰만과 몇몇학자들은 바울의 영성을 ‘교재의 신비’로 표현하였다.

‘교재의 신비’는 신과의 합일을 주장하는 합일의 신비를 배격한다. 바울에게서 볼 수 있는 교재의 신비는 ‘내가 그리스도안에’, ‘그리스도가 내안에’있는 형태로서 어디까지나 그리스도를 머리로하여 그에 대한 복종 및 교재에 관계에서 사는 것을 의미한다.³¹⁾ 바울은 그리스도교의 영성 추구운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인식하고 그의 삶의 길을 본받아 사는데 목적이 있다고 본다.³²⁾ 그리하여 바울의 영성은 실제적이며 실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능동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삶이란 보이지 않는 어떤

31) 김외식, “기독교영성의 바른이해” 「신앙계」(서울: 1986년 4월호), p. 46.

32) 김성희, “청소년의 영성훈련과 회심에 관한 연구”(대전: 목원대학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p. 28.

신비적인 실체만이 아니라 성령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며, 육적인 삶이란 성령 바깥에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삶의 모든 차원을 가리키는 것이다.³³⁾

반면에 사도요한의 영성은 하나님의 신비주의(God-Mysticism) 혹은, 성령 신비주의(Spirit-Mysticism)로 표현된다. 요한의 영성에 있어 중요한 술어는 ‘거한다’는 단어인데 ‘아버지께서 내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형태를 취한다. 이처럼 요한의 영성개념은 정신적이면서 정적인 개념이 있다.³⁴⁾ 그리고 사도 요한은 바울과 같이 그의 영성의 최고봉은 ‘사랑’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고전 13:13; 요일 3:14).

이러한 바울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사는 것과, 요한의 성령의 뜻 안에 거하는 영성이 초대교회의 영성에 대표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나 초대교회의 영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플라톤주의적 영향과 영지주의와의 투쟁을 빼놓을 수 없다. 초대교회의 과제는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의 정립이었다. 교부들은 예수에 대한 지식과 영원한 삶을 동시에 추구하였는데 그 둘은 분리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마 16:15)라는 예수의 질문에 바로 대답할 수 있기 위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야만 되었다. 즉 예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영적 지식이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론 논쟁이 그토록 치열하여 기독교 공인후에 로마제국의 정치적, 사회적 통일을 위태롭게 할 정도였던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각과 그리스도에서 오는 영생의 삶을 추구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대교회의 영성은 플라톤주의적 영향과 영지주의적 영향의 투쟁과 밀접한 관계를

33) Ibid., p. 42.

34) 류길환, “통전적 영성이 목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p. 27.

가지고 있다.³⁵⁾

1-2 교부시대의 영성

고대교회에 있어 신학을 체계화시키고 영성운동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사람은 어거스틴이다. 어거스틴은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 마니교에서 생활하였고, 신플라톤주의 철학에 심취되어 있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회심한 후 어거스틴은 희랍철학과 이교사상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그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에게 찾아 오신 아가페 사랑을 강조하게 되었고 플라톤의 이데아 세계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게 되었다. 그러나 어거스틴의 신학 역시 이원론적인 색채가 드러난다. 예를 들면 어거스틴은 결혼보다는 독신을 권장했고, 수도원 운동에 앞장섰다.³⁶⁾

어거스틴에 있어서 영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다. 사랑만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힘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어거스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적 인식과 영적생활에 필수적인 것은 인간의 영혼 깊은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었다. 물론 어거스틴은 믿음을 무시하지 않았지만 다만 순서를 바꾸어 말했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의 경건과 영성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다.³⁷⁾

35) Ibid.

36) David Bentley-Taylor,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본 신앙」 김원주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5), pp. 93-103.

37) 홍치모, “영성운동의 역사적 고찰” 「목사계속교육강의집: 성령과 영성 (제7권)」 (서울: 유니온 학술자료원, 1990), pp. 156-157.

제 2 절 중세교회의 영성

중세 로마교회는 기독교를 의식의 종교로 만들었다. 모든 것이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성직제도(聖職制度) 밑에서 통제되었고 실천되었다. 구원론이 교회론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중세교회의 영성운동은 초대 교회 말기 금욕주의 사상을 받은 수도원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보편적으로 종교적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엄격한 독신생활을 강조한다고 알려져 있는 중세교회의 수도원 운동은 기독교가 세속적이며 이교적 사고방식에 적응하려는 것 때문에 일어난 저항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후 313년 이후, 즉 기독교가 공인을 받고 박해 없는 시대가 되면서 적극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중세의 수도원 운동은 도피적인 은둔적 정신운동이며, 개인주의 운동일 뿐 아니라 성경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금욕주의적인 고행주의를 중심으로 한 비복음적 운동이라고 비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수도원 운동을 통한 영성훈련은 당시의 형식적 형태만 남은 교회 속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 넣는 활력소가 되었다. 즉 수도원 운동은 은둔, 독거, 묵상, 노동, 검소, 청빈, 극빈, 성경연구, 기도, 침묵, 예배 등을 통해 영성훈련을 쌓아 인간 영혼의 신적 상태로의 상승을 목표로 일어난 운동으로 비록 문제점도 많았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은 당시 교회의 이단들을 회개시켰으며 성직자들을 각성시켰고, 선교에 열심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 성경번역 사업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³⁸⁾

그러나 중세교회는 봉건제도 위에 설립되었고 교회 재산의 수입이 증가됨에 따라 그 본래의 영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리고 수도원도 로마교회라는 체제하에 예속되어 있었음으로 중세 카톨릭교회의 교황체

38) 한성기, 「오늘의 신학과 내일의 신학」 (서울: 잠언, 1997), pp. 213-214.

제하에서 제도화되어 버렸다. 즉 사도바울이나 어거스틴이 강조했던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경건’이었다. 이것은 교회와 수도원의 계율을 잘 지키고 나아가서는 선행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적을 쌓음으로서 구원을 얻는데 공로의 보탬이 되는 공로사상과 결부된 사랑이었다.

이와 같은 공로사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건훈련’은 일부 평신도들에 의해서 거부당하기도 하였다. 소위 왈도파(Waldo)라고 불리웠던 사람들은 반체제 영성운동의 하나였다. 그들은 성령과 성경 그리고 은혜의 교리등을 강조하였으나 중세교회 신비주의 영성체제하에서 정면 충돌을 일으켜 박해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유명한 성 프란시스(St. Fransis)의 탁발승 운동도 중세교회의 경직된 교회주의에 반대하여 일어났던 운동이었으나 교황청의 인가를 얻고난 후 그들의 영성운동은 쇠약해졌고 모처럼 그들이 표방했던 ‘청빈’도 잘 지키지 못하였다.³⁹⁾

복잡한 역사속에서 초대교회나 중세교회가 잘못된 신학적, 철학적 영향을 받아 영성훈련이 잘못된 경향으로 흐른 것은 있지만 언제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참된 생명력이 남아 있었고 거기서 우리에게까지 계승되어온 참다운 영성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제 3 절 종교개혁의 영성

종교개혁운동은 순수한 기독교를 재발견하려는 운동이었다. 프로테스탄트의 영성신학의 특징은 말씀 중심이 되었다. 즉, 종교개혁의 영성

39) 이장식, “오늘의 영성의 사적 고찰”, 『오늘의 영성신학』 (서울: 양서각, 1988), p. 117.

의 중심은 성경이었다.

종교개혁운동은 중세 교회가 제도와 전통의 기구와 권위에 치중함으로써 상실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의 신 도신 주권을 그의 교회와 역사 속에서 인정하자고 하는 운동이었다. 또한 종교개혁운동은 이와 함께 칙령과 회칙, 그리고 수도원의 규칙에 매인 심령을 풀어주고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 순수한 기독교를 재발견하려는 운동이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 시대의 영성의 중심은 성경이었다. 이들은 또한 인간은 오직 은총에 의해서만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고 믿었다.⁴⁰⁾ 이러한 종교 개혁의 운동이야말로 기독교의 영성운동이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들의 영성운동을 고찰하는 것은 종교개혁시대의 영성운동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된다.

루터는 인간이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이성을 근거로 한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였다. 루터의 영성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었다. 루터의 궁극적인 목표인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그 믿음은 성경메시지의 전적 수용이고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복음은 개인과 교회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으며 사회적 복음으로 확대되지 못했다. 그래서 ‘루터의 사회’는 죄인을 용서하고 교정하며 가난한 자와 능력 없는 자가 보호받는 사회에 이르지 못했다.⁴¹⁾

영성에 대한 쾰링글리(Zwingli)의 중심사상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세

40) Ibid., pp. 214-215.

41) 이양호, “종교개혁자들의 영성” 「기독교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8년 4월호), p. 42.

상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 기인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선행도 주권적인 성령의 활동결과이다. 하나님의 주권자 하나님의 예정에 대하여 강조함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의 결과로 보고 그래서 행위에 의한 구원을 부정하는 모든 시도들에 대해 비판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면서 복음은 새로운 율법으로 생각하였다.⁴²⁾

칼빈은 새로운 경건과 인문주의의 영성을 수용하면서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영성의 이해를 보이고 있다. 칼빈의 관심은 하나님의 초월성의 지배인 그의 선택하심,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다. 따라서 그의 신학사상은 하나님의 초월성에 의해 확립되며, 그 자체가 세계의 역사 속에 하나의 패턴을 형성하는 질서관념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은 인간으로 하여금 완전히 자기를 포기토록 하며, 하나님께 헌신하고 영광을 돌리게 한다. 특히 칼빈에게 있어서 인간들의 초월에 대한 본능은 더욱이 위대한 예배의 존중으로 나아가는데, 칼빈과 새로운 경건 사이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다.⁴³⁾

칼빈은 신앙과 실천, 의인과 성화를 조화시키려 하였다. 칼빈에 의하면 우리의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과정을 갖는데, 성령이 바로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시켜 그리스도의 유익을 받게 한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성령론)에서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mystical union with Christ)을 성령신학의 핵심으로 전개하고 성령신학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⁴⁴⁾

42) Ibid.

43) 한인수, 「경건신학과 경건운동」(서울: 도서출판 경건, 1996), p. 103.

44) 황창기, op. cit., p. 18.

칼빈에게 있어서 그의 교리의 핵심주제인 칭의와 성화는 그리스도와 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칭의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성화는 그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 기초가 되는 것이다.⁴⁵⁾

인간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깨닫게 될 때 인간이 유한할 뿐 아니라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식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며 성령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즉 성령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 성령님이 진리에 대해 증거한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하며 이때야 비로소 인간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지만 타락으로 인하여 그것을 상실하였다. 우리는 그 형상을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하게 되며 그리스도인의 삶은 발견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을 인식하고 회복하는 삶 즉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화되어 가는 삶의 연속이 되어야 하며 그 성화되어 가는 삶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칼빈사상에 있어서 영성의 핵심이다.

제 4 절 근대교회의 영성

종교개혁 이후의 영성운동은 다양하고 복잡하다.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기독교는 다시 한번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되기 위해 유럽을 기점

45) Joseph Richard, 「칼빈의 영성」 한국칼빈주의 연구원 편역, 칼빈 총서 제4권, (서울: 기독교문화협회, 1997), p. 147.

으로 하여 움직이면서 많은 새로운 도전을 받았다. 그러나 이 시기에 대부분의 기독교의 관심은 대체로 새로운 문화 발달, 도시화 산업혁명, 국가간의 전쟁 등 유럽과 아메리카의 문제들에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비교적 젊은 개신교회들과 카톨릭 교회와 정교회에서 영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들이 발달되었다.⁴⁶⁾

개혁시대가 끝난 후 많은 개신교 운동들은 세 단계의 발달을 거쳤다. 첫째는 신앙고백의 시기였다. 이 시대의 지도자들은 교리를 지적으로 정의하고 옹호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둘째는 경건주의 시대로써 특히 영성이 감정적 차원에서 일반인들의 욕구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성주의 시대 또는 계몽주의 시대인데 이 시대는 자율적 이성에 대한 비판에 성경과 교회의 관습이 관련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합리주의는 종교의 역할을 우주의 윤리적 규범을 가르치는 것으로 축소시켰으며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관계 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합리주의 종교성은 오랜 시간동안 교회에 영향을 미쳤으며, 경건주의와 더불어 양대 사상의 흐름으로 교회를 인도해 왔다. 결국 개혁자들이 회복한 영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 중세의 영성으로 돌아서기 시작했으며 그 양상은 다르지만 개혁주의 경건이 약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이 시기에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은 청교도들에 의해 유지되었는데 청교도 신학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도록 예정되었다는 확신으로 인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개인생활과 사회생활 전체를 요구했다. 특별히 청교도 영성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측면에서 강조되었다.

46) Bradley P. Holt, op. cit., pp. 159-166.

제 4 장 개혁주의 영성

제 1 절 개혁주의 영성의 특징

영성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고 영성훈련이 각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성이해는 개인적인 경건의 영성에서부터 사회적 해방의 영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뿐 아니라 영성운동이 한국교회 안에서 양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개인적 경건을 강조하는 영성운동은 사회적 해방의 차원을 세속주의로 간주하고, 사회적 해방을 강조하는 영성은 개인적 경건을 신비주의 내지 도피주의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두가지 양극적인 흐름은 아직도 영성에 대한 개혁신학적 전통의 이해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고 있다.⁴⁷⁾

1-1 은총의 신앙에 입각한 영성

개혁신학은 은총이란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물이라고 믿는다. 개혁신학은 인간 행위에 의해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거부한다. 「기독교강요」에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 중재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분명하다. 이 말은 사람이 자신만으로는 의롭지 않으나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전가되며 전달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과 같다. …… 참으로 여기서는 저 경박한 생각이 사라지고 만다.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47) 안영권, 「팔복의 영성」 (서울: 진흥, 1998), p. 120.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의롭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경박한 사상은 위에서 말한 교리와 반대되는 것이며 도저히 조화시킬 수 없다.⁴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도 “믿음은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내게 불어 넣어 주시는 굳건한 확신입니다.”⁴⁹⁾ 고 말한다. 이러한 은총에 대한 강조는 영적훈련과 행위의 의에 대한 거부에서 나왔다. 중세의 영적수련은 신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로서 비영적인 상태에서부터 신과의 연합의 상태로 나아가는 인간적인 방법이었다. 이러한 중세의 영적 수련은 다른 세속적 책임에서 벗어나 전 시간을 영적 삶이 추구를 위하여 바칠 수 있는 수도원의 테두리 안에서 시행되었다. 이 중세의 영적 수련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기 위하여 인간의 공적을 쌓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행위의 의에 대해 거부했다고 해서 영적 삶에 대한 중세적인 모든 훈련에 대하여 적대적이지 않았다. 종교개혁자들 특히 칼빈은 개인적인 성경연구와 묵상, 기도, 예배와 성례전의 참여 등 전통적인 중세의 영성훈련의 방법들을 그의 「기독교강요」에서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공적은혜에 대한 수단과 병행하게 되어졌다. 은혜는 아무런 공로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지라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써 이 은혜의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은혜의 수단이란 신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열려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요구에 민감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것이다.

48) John Calvin, Inststutes. III. XI. 23. (※ 이하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Inst. 장. 절로 구분한다.)

49)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21문.

1-2 공동체 신앙의 영성

종교개혁의 전통은 어떤 형태의 사유화된 종교를 거부한다. 예수에 대한 인격적 관계에 만족하고, 제자됨의 수평적 관계를 무시한 어떤 경건도 거부한다. 이 세상사에 대한 관심을 멀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상실한 어떠한 영적 실천도 종교개혁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에 위배되는 것임을 보았다.

칼빈은 모든 성도들은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며 뿐만 아니라 위로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개인적 독서와 명상으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공적 모임을 멸시하고, 설교를 피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자들의 확신에 대항하거나 교만과 혐오에 의하여 인도하는 자들”을 우습게 보았다.⁵⁰⁾ 칼빈은 당시 재세례파의 가르침과 실천이 비성경적임을 비판했다.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도 1992년 10월에 예수 재림을 주장했던 시한부 종말론과 각종 불건전한 오순절 운동과 은사 운동도 역시 사회성과 교회의 연합성과 친교를 깨뜨렸다.

개혁주의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택하신 신자의 구속에 대한 강조이다. 하나님은 성도의 공동체를 언약의 맥락속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⁵¹⁾ 그러나 개혁 전통은 신앙공동체를 경멸하거나 자기가 신앙의 공동체에서 형제나 자매보다 우월하다는 개인주의적 영성으로 나아가지 아니했다. 오히려 개혁신앙의 전통은 이러한 영성을 타자를 위한, 봉사를 위한 능력의 원천으로 사용하고자 했다. 청교도의 경건주의 신앙은 사회봉사를 위한 윤리로 발전했다. 칼빈주의 윤리는 개인주의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세계 내적

50) 하워드 라이스, *op. cit.*, p. 66.

51) *Ibid.*

금욕주의를 통하여 자본주의의 정신을 낳았다.

개혁 전통은 인간 본성에 대한 죄의 침투성(pervasiveness of sin)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개인들은 항상 그들의 종교체험이 그들의 욕망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잘못함으로써 왜곡되거나 환상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신앙공동체에 의한 교정을 필요로 한다.

공동체 신앙은 구체적인 예배, 선포된 말씀의 경청, 성례전의 공동적 집행에의 참여에서 표현된다. 신자들은 공동체와 유리되어 개별적으로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구속된다. 신자들은 예배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신앙의 의미를 배운다. 신자들은 공동적으로 선포된 말씀에 노출됨으로써 우리가 누구인가 지속적으로 기억하게 된다. 신자들은 전 교인들이 모인 기도의 삶에 참여함으로써 기도하기를 배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전통내에서 사적 기도훈련을 위한 역사적 처소가 있다. 칼빈은 예수님이 기도를 위하여 조용한 처소로 물러난 것을 지적하면서 기도를 비밀이라고 정의하였다. 기도란 “원리적으로 가슴속에 거하며, 모든 우리 속에 가득차 있는 걱정으로부터 정적(靜寂)을 요구한다.”⁵²⁾

1964년 채택된 「웨스터민스터 예배지침서(The Westminster Directory for the Worship of God)」는 비밀 내지 개인예배 네 부분의 항목을 내포한다. 기도, 성경봉독, 거룩한 명상과 진지한 자기시험이다. 최근의 예배지침서에는 이 항목은 성경봉독, 기도, 하나님에 대한 조용한 기다림, 말씀에 대한 명상, 자기 헌신, 봉사에의 헌신, 등을 내포하고 있다.⁵³⁾

여기서 은밀한 기도의 각 부분들은 공적 기도에 의하여 균형되고 이

52) Inst. III. XX. 29.

53) 김영한, 「21세기와 개혁신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89), pp. 291-292.

웃과 나눌 때 진실로 유지된다. 그러나 이것들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홀로 행해져야 한다.

홀로 기도하지 않는 자는 공적 기도시에 가져갈 것이 없고 스스로 성경을 읽지 않는 자는 설교를 들어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경건의 개인적 형태와 공적형태는 서로 균형 잡혀야 한다. 칼빈은 이 개인 기도와 공적 기도의 양면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경건자들의 거룩한 무리에서 기도하는 것을 거부하는 자마다, 개별적으로 은밀한 처소나 집에서 기도하는 것을 모르는 자이다.” 홀로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를 게을리 하는 자는 ‘공적 모임에 자주 간다’ 하더라도 단지 ‘바람 잡는 기도’만 할 뿐이다.⁵⁴⁾

1-3 감성과 이성의 균형잡힌 영성

개혁주의 전통은 지성의 온전한 사용이 없는 감상의 위험(the danger of sentimentality)을 경계한다. 감상이란 조심스런 사고보다 감정을 더 우선하는 과도한 정서주의(excessive emotionalism)이다. 정서란 신자들에게 신뢰할 것이 못된다. 느낌이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도 스스로의 병리적 필요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개혁전통이 감상을 거부하는 것은 이러한 개인적인 느낌을 추구하는 경건의 형태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감상주의는 느낌을 계시받는 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인간적으로 오도된 상상으로 빠지게 된다. 감정이란 위험스럽게 오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감정은 이성과 균형있는 관계속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 접근할 때 우리의 감정은 이성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대각성운동의

54) Inst. III. XX. 29.

창시자인 요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는 열과 빛의 유비를 사용하여 사상과 감정 사이를 필연적으로 연결한다. “느낌있는 열정적인 가슴과 같이 이해에는 빛이 있어야 한다. 빛 없이 열만 있는 곳의 그 가슴속에는 신적이거나 하늘의 어떤 것도 없다. 다른 면으로 열 없이 빛 종류, 개념과 사변만이 있는 머리가 있고, 차갑고 느낌 없는 가슴만이 있는 곳의 그 빛 속에는 신적인 것은 없다.”⁵⁵⁾

칼빈도 신앙이란 지성과 감성, 머리와 가슴의 통일로서 신자의 인격에 형성된다고 말한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진정한 신앙에 있어서 지성과 감정의 두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신 모든 것은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믿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역시 죄를 용서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의롭게 되었으며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내게 불어 넣어주시는 굳건한 확신입니다.⁵⁶⁾

개혁전통은 단순한 감정적 정서에서만 치우치지 않고 그것을 말씀의 빛에서 오는 지성을 통하여 검증한다.

1-4 경건에 기초한 지성의 영성

칼빈에 의하면 신앙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이 주어진 약속의 진리에 근거하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계시되고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확실하고 확고한 지식

55) Jonathan Edwards, *Religious Affections* ed. John E. Smith, vol. 2, *The Works of Jonathn Edwards*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1959), p. 120. 하워드 라이스, op. cit., p. 72에서 재인용.

56)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21문.

이다.” 여기서 지식이란 단지 ‘이해’(comprehension)만이 아니라 지각을 넘어선 어떤 것(something beyond sense perception)이다. 가슴 없는 머리 지식이란 우리를 설득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는데 충분하지 않다. 신뢰는 신앙의 가슴이기 때문에 정서는 신앙의 행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⁵⁷⁾

칼빈 이후 정통 칼빈주의자들은 이 신앙과 이성을 분리시키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칼빈주의자가 구프린스톤과 웨스트민스터의 정통주의로 발전하면서 지성과 감정의 균형잡힌 신앙은 바른 교리적 선언에 대한 승인으로 변질하였다. 종교개혁적 이신득의에 의한 구원은 바로 교리와 신념과 사상에 의한 구원으로 왜곡되고 기독교적 삶이란 바로 교의에 대한 수납으로 환원되었다.⁵⁸⁾

칼빈은 롬10:10을 주석하면서도 믿음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고, 확고한 확신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구절은 이신칭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구절의 말씀은 복음으로 우리에게 제공된 하나님의 자비를 인식하여 받아들임으로 해서 우리가 의를 얻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믿음의 좌소(座所)가 머리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는 점이다. 나는 여기서 믿음이 위치하고 있는 신체적인 부분에 대하여 논하려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진지하고 신실한 감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믿음이란 단순한 개념이 아니고, 확고한 확신이라는 것을 주장하려는 것 뿐이다.⁵⁹⁾

57) 하워드 라이스 op. cit., p. 72.

58) Ibid., pp. 73-74.

59) John Calvin, 「칼빈성경주석 7」(서울: 존 칼빈성경주석출판위원회 역편, 성서교재간행사, 1979), p. 333.

동시에 칼빈은 이러한 믿음에 있어서 성령의 우선권 있어야 함을 말한다. 즉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다.⁶⁰⁾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믿음인데, 이것은 성령께서 사람들을 인도하실 때에만 가능하다고 한다. 인간의 무능함과 죄악성 때문에 그들에게 제시된 율법을 지킬 수 없으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은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견고한 믿음으로 받아들일때 가능한 것이라고 말한다.

칼빈은 믿음의 근거는 무지가 아니고 지식이라고 말한다. 이 지식은 하나님뿐 아니라 그이 뜻까지 아는 지식이라고 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이 성립되었기 때문에(고후 5:18-19),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로운 아버지시며 그리스도를 의와 성결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 이 지식에 의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의 감정을 위임함으로써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그는 분명히 말하고 있다.

그는 믿음이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또 확실하게 아는 지식이며, 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약속의 신실성을 근거로 삼은 것이며,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에 계시되며 우리의 마음에 인친바가 된다고 한다.

칼빈은 그가 믿음을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지식’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식’과는 다른 것임을 밝힌다.

우리가 믿음을 ‘지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인간의 감각적인 지각으로 아는 사물들에 관해서 말하는 지식이나 이해와는 다르다. 믿음은 감각을 훨씬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에 도달하려

60) Ibid., p. 39.

면 사람의 마음은 그 자체를 초월해야 한다. 마음은 믿음에 도달한 때라도 그 느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믿을 때에는 그 신념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것을 자체의 능력으로 지각한 때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한다. 그러므로 믿음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힘을 깨닫는 힘'이라고 바울은 아름답게 묘사한다.(엡3:18-19) 그가 말하는 뜻은 우리의 마음이 믿음에 의해서 얻는 것은 어느 면으로 보든지 무한하며, 이런 종류의 지식은 모든 이해력을 훨씬 초월한다는 것이다. 바울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아는 일들은 우리 앞에 있지 않고 눈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믿음의 지식은 이해가 아니고 확신이라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다.

1-5 현실세계에 대한 긍정의 영성

개혁신학의 전통은 이 세상으로부터 유리된 어떤 경건을 거부한다. 신자의 경건적 실천과 그의 직업, 가족과 사회적 삶에 대한 이 실천의 영향 사이에 어떤 분리가 있을 수 없다. 구체적인 이세상으로부터 영적 세계를 분리시키는 어떤 경건도 위험스러운 것으로 간주한다.

창조를 가상으로 본다거나 경제와 정치의 삶을 기독교의 삶보다 열등한 것으로 무시하는 경건의 형식은 개혁전통에 낯설다. 영과 육 사이를 엄격히 구분하고 영을 좇는 것을 선으로 보고 육을 악한 것으로 간주하는 가치판단은 회랍적이고 불교적이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영지주의적 가르침이 참된 경건성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역설했다.

바울과 요한의 가르침은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thinking of dichotomy)를 정죄하고 있다. 칼빈 역시 이러한 이원론적 사고를 배격했다. 그는 죄가 감성적 유혹에 의하여 이 세상에 들어 왔다는 일반관

념을 거부했다. 그는 “불신앙이 야망(ambition)에 의 문을 열고 야망은 반역을 야기했다”고 역설한다. 야망은 육체의 죄가 아니라 마음과 영의 죄이다. 죄는 인간 삶의 총체성 곧 사고, 느낌, 행동, 정치, 경제, 경건 등에서 표현된다.

육과 영혼의 이원론을 거부했기 때문에 칼빈은 자연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서 축하할 수 있었다. 이 선한 창조는 하나님에 의한 은혜로운 제공으로서 인간이 사용하도록 의도하신 것이다.⁶¹⁾

개혁전통은 이러한 건전한 세상성(sound Worldliness)을 인정한다. 그래서 영적훈련의 목표는 신자를 이 세상으로부터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동하도록 더 잘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영적 삶의 목적이란 이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과 경건이 통전되는 것이다.⁶²⁾

칼빈은 세상과 분리적인 태도를 취하는 중세적 수도원 체제를 거부했다. 그것은 그가 그들의 영적 실천과 이상을 무시한데 있지 않고 기록과 세속 사이의 분리를 철폐하고자 한데 있다. 수도원 삶은 육에 대한 엄격성 때문에 물리적 세계를 대가로 치루고 영혼을 찬양하는 위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이웃과의 삶을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삶만을 추구했다.⁶³⁾

이에 대하여 칼빈은 영적 훈련을 세상에서의 하나님 전 백성의 삶으로써 통전시키고자 했다. 칼빈은 이러한 이원론적 영적 사상, 세속을 포기하고 수도원으로 퇴각함으로써 진정한 영적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분

61) Inst. III. X. 2.

62) 하워드 라이스, *op. cit.*, p. 76.

63) *Ibid.*

재세례파의 사상을 거부했다. 칼빈은 세계 내적 경건을 강조했다. 명상적 삶이란 이러한 일상적인 삶과 분리되지 않고 오히려 밀접한 관계속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이제 수도원적 명상은 매일 가족의 아침 기도와 저녁기도로 시행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종교개혁 전통이 “매 기독교적 가정이 세상 속의 작은 수도원이다”라고 해석한 것은 기독교적 영성 이해에 하나의 큰 공헌이었다.

이러한 세계 내적 영성은 기독교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힘과 활력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 내적 영성은 자칫 세대의 조류에 너무 쉽게 적응해 버리는 약점도 가지고 있었다.

1-6 초월적 영성에 근거한 내재적 영성

개혁전통의 영성은 세속주의적 영성을 거부한다. 기독교 영성이란 인간이나 세속적 정신에서 나오지 않고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의 능력에서 유래하기 때문이다.

현대 해방신학은 기독교 영성을 해방의 영성으로 세속화 시킨다. 해방신학은 영성을 역사속에서 정의의 실천으로 이해한다. 해방의 영성은 전인적, 총체적 삶을 통한 실천을 강조한다. 해방신학은 전통적 기독교의 영성이 영적 요소만을 부각시켜 하나님의 초월성만을 강조하고, 인간 실존의 육체적, 물질적 요소를 무시함으로써 하나님의 내재성을 소홀히 했다고 비판한다.

구티에레즈(G. Gutierrez)는 사회정치적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투쟁을 강조한다. 소브리노(J. Sobrino)는 해방의 실천이 없이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다고 본다. 그에 의하면 해방의 영성이란 박해로 점철되는 ‘투쟁속의 사랑의 영성’(spirituality of love-in-conflict)이

다.64)

해방의 영성은 정의의 실천을 강조한다. 해방신학은 전통적 기독교가 사랑과 정의가 불가분의 관계속에 있는 것을 등한시 해왔다. 해방의 영성은 정의로운 사랑을 강조한다. 사랑은 바로 사회정의를 통하여 올바르게 효과적으로 실현된다고 본다. 해방의 영성은 희생자와 사회적으로 억눌린 자의 울부짖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역설한다. 해방의 영성은 해방자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그리하여 해방의 영성은 역사적 인물 해방자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역설한다.

현대의 여성해방신학자들은 여성해방 영성(feminist spirituality)을 강조한다. 그것은 남성 지배의 가부장적 체제에서 남성에게 종속되고 억압되어 소외된 여성의 자율성, 여성의 자기 실현, 여성의 자기 초월을 고무한다. 그리하여 여성해방 영성은 가부장 제도가 여성의 존엄성과 권리를 억압한다고 보고 이 가부장 제도로부터의 해방을 역설한다.

이러한 현대 해방신학, 여성신학, 민중신학의 해방의 영성은 영성이 갖고 있는 사회적 연관성을 강조하는 공헌이 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는 이웃과의 의로운 관계에서 표현되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특히 이세상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갓히고 병들고 소외된 자에 대한 연민과 연대로서 표현되어야 한다.

현대 해방신학은 기독교 영성을 해방의 영성으로 세속화 시킨다. 해방신학은 영성을 역사속에서 정의의 실천으로 이해한다. 해방의 영성은 전인적, 총체적 삶을 통한 실천을 강조한다. 해방신학은 전통적 기독교의 영성이 영적 요소만을 부각시켜 하나님의 초월성만을 강조하고, 인간 실존의 육체적, 물질적 요소를 무시함으로써 하나님의 내재성을 소홀히 했다고 비판한다.

64) 김영한, *op. cit.*, p. 299.

선지자 미가와 아모스가 선포하는 것처럼 ‘정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행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진정한 신앙과 경건의 표현이다.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실 때 의인과 악인을 양과 염소처럼 구별하시는 표준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한 태도라고 역설하신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40).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마 25:45).

해방의 영성은 기독교의 영성이 자칫 개인주의적 영역에 갇혀 인간에 대한 의로운 관계를 망각하거나 소홀히 할 수 있는 데에 대한 영성의 사회적 관계성을 강조하는 공헌이 있다.

1-7 세계내적 검소(frugality)의 영성

개혁신학은 하나님 안에서 이 세계를 긍정한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처소요, 누리고 향유해야 하는 축복의 장이다. 그러나 이 세상의 소유에 집착하고 세상의 연락에 도취되는 것은 우상숭배이다. 우리의 소유가 우상이 될 때 그것을 포기할 줄 아는 태도가 요구된다. 따라서 소유에 대한 태도가 기독교 영성에 중심적이다. 칼빈은 개혁적 경건성의 고전적 태도 가운데 하나가 구제(almsgiving)라고 했다.

그것은 물질적으로 궁핍에 처한 자에 대하여 헌신적으로 돕는 영적 삶의 훈련이다. 칼빈은 구제를 중보기도(intercessory prayer)와 연결시킨다.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돕는 다른 길이다. 이것은 물질적인 차원을 넘어선다. 그러나 이웃의 궁핍에 대하여 무엇을 하는 것 없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없다. 기도와 행동은 불가분적으로 함께 속한다.

금식(fasting)도 세계 내적 경건성에 속한다. 금식은 탐욕과 방탕으로 나아가는 자연적 경향을 교정하는 것이다. 칼빈은 금식에 은유적 의미를 부가시켰다.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음식의 제한과 금기가 아니라 어떤 다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것의 과정을 통하여 경건한 자의 삶은 참으로 검소와 절제로 길들여져서 가능한 대로 그것이 금식을 닮도록 하는 것이다.”⁶⁵⁾ 금식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잃는 두려움의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 신앙과의 타협으로 쉽게 나아간다.

개혁전통 안에서의 금식은 세가지 중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금식은 육신을 약하게 하여 복종케 하며, 그것이 자의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한다.”⁶⁶⁾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충성에 이차적이다.

둘째, 금식은 기도와 명상을 위한 수단이다. 금식은 우리의 정신 상태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기도가 깊이 상달케 한다.

셋째, 금식이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겸비함에 대한 증언이다.⁶⁷⁾

공적금식이란 공동체의 죄과를 고백하는 목적을 가지며 회개에 대한 공동체적 표시이다. 청교도들은 이러한 공적 금식을 규칙적으로, 특히 씨가 땅에 묻히는 봄에 실행했다.

미국 개신교에 있어서 금식의 관습이 행해지지 않게 되자 에드워즈는 그의 목회 시절에 있어서 금식에 대한 강조의 결여에 대하여 언급했다. “비밀금식이 비밀기도처럼 정해진 방식이나 지속적인 과정으로서

65) Inst. IV. XII. 18.

66) Inst. IV. XII. 15.

67) Ibid.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지 않으나 모든 고백하는 신자들이 시행해야 하고 자주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⁶⁸⁾

미국 개신교는 에드워즈 이래로 금식이 개신교의 영적 훈련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리만큼 소홀히 해왔다. 그리하여 금식이란 로마 카톨릭교회의 훈련이거나 체중감소나 억압받는 자들과의 연대의 표시로서 이해되어 왔다. 금식에 대한 망각증은 경제적 영역에 있어서 신자의 풍요와 관련된다. 물질적 성공은 소유의 풍요성을 당연하다고 본다. 소유가 많을수록 금식의 훈련이 어렵게 되었다.

미국 장로교회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우리 한국교회도 최근 들어서는 물질적인 풍요를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생각하고 금식의 훈련을 게을리 하게 되었다.

1-8 그리스도를 닮는 성화의 영성

거룩성이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우리를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의 축복에 참여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신득의(justification)는 신자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시작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자라야 한다. 이것이 성화(sanctification)의 과정이다. 성화의 삶이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에 대한 즐겁고 감사하는 반응의 삶을 사는 것이다. 죄가 항상 우리 가운데 현재할지라도 우리는 죄의 소욕을 만족시키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는 새로운 인간으로 날마다 변형된다. 이것이 성화이다.⁶⁹⁾

안토니 호크마는 성화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책임있는 참여를 포

68) 김영한, *op. cit.*, p. 304.

69) 하워드 라이스, *op. cit.*, p. 84.

함하여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의 본성 자체를 새롭게 하시어서 우리가 주님을 즐겁게 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이다”라고 정의를 한다.⁷⁰⁾

그래서 성화는 성령의 사역이며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신비한 장막을 벗기고 우리에게 하늘의 찬란한 영광을 보이고 있다. 그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에 돌릴지어다”고 찬미하는 구속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계 5:13). 그의 백성들의 성화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가 영원히 찬송과 존귀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는데 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피력한다 :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골 3:9-10) 그리하여 우리속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의 신비스러운 현재와 더불어 사는 것이다.

초대교회는 성화의 목표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제시하고 있다. “너희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 2:5-8) 그리하여 신자는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mystical union)을 이룬다.

70) Anthony A. Hoekema, 「개혁주의 구원론」 류호준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p. 316에서 재인용.

1-9 현실을 변화시키는 의로운 영성

영적 삶은 의로운 삶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경건하게 살면서 불의한 삶을 살 수 없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보다 더 낮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 5:20).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매우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하는 자들이었으나 그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에는 거리가 먼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의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람이 아닌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의이다. 따라서 그 의란 형식적이지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이며 근본적인 것이다(롬 3:21, 22). 그리고 그 내적인 의는 곧 율법의 완성자요 성취자요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그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며, 그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의(義)를 말씀하신다. 그것은 율법적으로, 외형적으로 인정되는 의가 아닌 그 동기, 내면성을 감찰하시는 인격적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는 의를 말한다. 이 의는 은밀한 구제와 은밀한 기도와 은밀한 금식과 재물을 하늘에 쌓아 두는 것, 형제를 나의 판단대로 앎는 것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의 태도이다.

그것은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는 일이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복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마 5:23-24)

바른 예배는 형제와 화목하고 형제와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다. 형제와 송사를 진행하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다. 진정한 영성은 율법적 차원으로 형제를 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아가페의 정신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 5:44) 병든 자,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갇힌 자,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연민을 가지고 돌보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자이다(마 25:31-46).

제 2 절 개혁주의 영성의 미래 : 도전

오늘날 한국교회 뿐 만 아니라 기독교 내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회가 현실에 정신적 지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서구사회에서는 반(反) 기독교적인 풍토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현대의 문학적 흐름중 가장 크나큰 도전은 포스트모더니즘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타종교와의 관계에서는 종교다원주의 종교문학적으로는 뉴에이지 운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교다원주의란 하나님의 구원계시가 기독교뿐만 아니라 타종교에도 있으며 기독교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 아니라 타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현대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유주의신학의 종교운동이다.

뉴에이지 운동은 무신론적 세속주의와는 달리 종교다원주의 입장에서 인간을 넘어선 초월적 영성을 인정하면서 동양적, 밀교적으로 해석하는 현대주의적 혼합주의 운동이다.

따라서 종교다원주의는 범종교적 영성을 형성하고 있으며, 뉴에이지 운동은 혼합주의 영성을 형성시키고 있다.

2-1 종교다원주의와 범종교적 영성

현대사회를 흔히 다원주의 사회라 한다. 이것은 오늘날의 사회가 사회적 가치나 규범 뿐 아니라 사회조직과 구조 등에 있어서도 다가치, 다규범적 현상 즉, 다원화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다원화란 사회학적으로 볼때 개인이나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의식적, 근원이 다양해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경향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의 어느 구조속에서든지 뿌리 내릴 수 있다 하겠다.

이와 같은 현상은 종교 상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종교다원주의이다. 종교다원주의란 “다른 종교 집단들이 경쟁적 상황에서 공존하고 있는 것 혹은 다양한 신조적, 윤리적, 강조들이 다양한 종교들에 의해 주어지며, 행위에 대하여 다양한 종교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⁷¹⁾

종교다원주의는 후기 현대의 자유주의 신학이다. 후기 현대와 현대의 자유주의 신학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기독교 전통교리의 어떤 부분을 부인하고 축소하면서 기독교론적으로 사고하는 경향을 가지지만 이에 대하여 후기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기독교 교

71) Peter L. Berger, 「종교와 사회」 이양구 역, (서울: 종로서적, 1981), p. 155.

리에다 덧붙이면서 신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다원주의는 포용주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다. 종교다원주의는 기독교가 절대적이고, 유일하고, 결정적이고, 최종적이고, 규범적이거나 보편적이라는 전통적 주장을 거부한다. 재래의 자유주의 신학이 예수의 신성을 부인한데 반하여 후기 현대의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의 신성도 믿으면서 인간의 신성도 동시에 인정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예수는 다른 구세주 가운데 한 분으로 간주된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각 종교의 독특성을 부정하는 것이 없이 각 종교의 진리성을 인정하여 각 종교 신앙을 결합하고 있는 궁극자에 대한 비전을 제공함으로써 영적 자유를 누리하고자 한다.⁷²⁾

2-2 뉴에이지 운동과 혼합적 영성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그 가치관을 세워 나가는 초고속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이율배반적(二律背反的)인 것은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흥미가 오늘의 세대를 뒤덮고 있다는 점이다. 서점들의 진열대는 방대한 양의 밀교문학으로 채워지고, 영화와 비디오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존재들을 소재로 하여 그들을 우주의 주인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신비주의, 유행심리학, 우주 인문주의, 영매, 점신술, 마법, 샤머니즘, 점성술, 사후체험, 육체 분리, 미확인 비행물체(UFO) 접촉, 그리고 힌두교와 불교의 여러 요소들이 교묘하게 섞여 있는, 소위 뉴에이지 철학과 믿음이 도래 함으로써, 환생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것은 기독교 뿐만이 아닌 과학적 무신론이나 실존주의적 불가지론에 대

72) Stanley J. Grenz, 「20세기 신학」 신재구 역, (서울: IVP, 1998), p. 295.

한 독특하면서도 은밀한 대안이 되어가고 있다.⁷³⁾

이러한 현실적 상황에서 뉴에이지운동은 역사적 기독교에 심각한 도전이 되며 지금까지의 어떤 이단보다 더 치밀하고 친숙한 형태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뉴에이지 운동은 무신론적 세속주의와는 달리 종교다원주의 입장에서 인간을 넘어선 초월적 차원을 인정하면서 동양적, 밀교적으로 해석하는 현대주의적 혼합주의 운동이다.

뉴에이지는 포스터모던이라는 사회현상과 맞물려 새로운 종교로 급속히 번져가고 있으며, 구원 다원주의, 신입합일, 초능력강조, 자살과 파멸로 이끄는 무서운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다. 뉴에이지 운동이 결국 가서는 사탄숭배교로 발전할 것이라는 증거가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뉴에이지 운동은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류를 분리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배후에 깔은 사탄의 교묘하고 사악한 전략이다. 인류 역사를 통하여 처음으로 등장한 사탄의 전략은 이방 종교이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데 성공적인 역할을 하였다. 불교, 힌두교, 회교 뿐만 아니라 사교, 이단, 미신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분리시키는 크고 작은 사탄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구 가운데 20억이상이 이러한 종교에 묶여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와를 속인 사탄은 오늘날 우리의 문명을 자극하며 주관하고 있다.⁷⁴⁾

21세기에는 전통적 기독교가 쇠퇴하고, 성경적언어가 그 힘을 상실

73) 마크 C. 울브랙크, 「뉴에이지 운동과 환생」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p. 7.

74) 임수식, 「성경이 가르치는 마귀론」(서울: 보이스사, 1991), p. 139.

하고, 종교적 다원주의가 밀물처럼 다가오는 가운데 뉴에이지 운동(New Age Movement)이 확산되고 있다. 뉴에이지 운동은 서구사상에 동양적 비교(秘敎)주의 사상을 혼합시키고 이에 점성까지 동원하는 신비적 혼합주의이다. 뉴에이지 운동은 의식의 변화를 통한 새 인간(New Man)과 새 세대(New Age)의 도래를 예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뉴에이지 운동은 다양한 동양적 종교에서 유래한 비의(秘儀)적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특징화 된다.⁷⁵⁾

첫째, 힌두교적 요가와 명상이다. 뉴에이지 운동은 이러한 비의적 방법을 통하여 인간 속에 있는 우주의 에너지를 일깨워 우주 의식과 합일된 해탈을 추구한다. 뉴에이지 운동은 요가와 명상을 통하여 인간 자아의 잠재적인 의식을 깨우쳐 니르바나(Nirvana)라는 열반(涅槃), 해탈(解脫)의 인신(人神)경지에 도달하고자 한다.

둘째, 심령술이다. 뉴에이지 운동은 열매와의 영적 교류에 의한 인간이 아닌 영들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이 운동은 영매, 마녀, 마법사, 주술가들의 도움을 빌려 인간의 다른 면과 말하고 영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힘을 빌린다.

셋째, 자동기록(Automatic Writing)이다. 뉴에이지 운동은 고대의 경전들과 그들의 수호신의 가르침을 받는다. 이러한 경전이란 과거와 현재의 영에 의하여 전달되고 기록되었다고 본다. 옴파(念波)라는 텔레파시에 의하여 그 비의를 깨닫고자 한다. 뉴에이지 운동은 뉴에이지적인 인식의 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상과 인간관과 구원관을 영지주의적이고 범신론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75) _____, 「뉴에이지」 편집부 편,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2), pp. 57-85.

넷째, 신비한 초능력이다. 뉴에이지 운동은 명상의 초월상태에서 초능력을 행사한다. 땅, 물, 불, 바람을 통제할 수 있는 투모(Tumo)술, 특수한 호흡법에 의하여 공중의 자유에너지를 몸속으로 끌어들이 장거리를 고속으로 달리는 축지법, 한사람의 상념을 공중의 전자파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알리는 텔레파시 등을 통하여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한다.

다섯째, 마인드 콘트롤(Mind Control)이다. 뉴에이지 운동은 자기 최면을 통하여 잠재된 의식을 일깨우고 자기 속에 있는 참된 자아, 곧 신의 본질을 지닌 자신을 발견하고자 한다. 다음은 퍼거슨의 자의식에 관한 설명이다.

여기에서 얼마 동안 멈춰서서 자기의 기분의 움직임을 조용히 바라보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 즉시 새로운 시야가 떠오르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변혁의 계기가 될 것이다. 자기가 자신의 기분을 관찰하고 몸의 움직임을 주시하여, 어디에 자기 정신이 향해져 있고 무엇에 성취받으며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먹고 무엇과 접촉하고 있는가를 알기 시작한다.⁷⁶⁾

퍼거슨은 인간이 지금까지 외부 세계로만 열려 있던 의식의 세계를 자기 내부로 향하고 자신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발견하게 될 때 비로소 자신을 발견하고 참된 자아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여섯째, 바이오 피드백(bio-feedback)이다. 뉴에이지 운동은 마음의 조절에 의하여 생리의 변화를 마음대로 조절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이 운동은 영적 개발을 위하여 명상 및 요가 수행에 바이오 피드백을 활용한다. 바이오 피드백 이론에 의하면 뇌, 마음, 신체는 하나의 연속체이다. 인간의 마음, 즉 의지, 공포, 환희, 이미지, 추측, 기대는 두뇌의 작용

76) Ibid., p. 66.

을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마음과 두뇌의 관계는 일반통행이 아니라 화학물질, 영양, 산소 등으로 두뇌의 작용이 바뀌면 사람의 마음도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일곱째, 마약을 통한 치료와 사용이다. 뉴에이지 운동은 이러한 자의식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자아를 개방시키는 데 환각제(LSD)등 마약을 사용한다. 뉴에이지 운동가들은 마약을 통한 황홀감과 신비감의 경험도 분명히 인간 내면의 정신세계에 대한 경험이요, 우주적 의식의 경험이요, 생명현상과의 일체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 열거한 일곱가지의 비의(秘儀)적 방법들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결합되어 인간신(人間神)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식의 혁명을 위하여 사용되어 진다. 21세기에는 이러한 뉴에이지 운동이 한층 더 큰 세력으로 나타나 혼합주의적 영성을 형성할 것이다.

이러한 뉴에이지 영성은 기독교와 힌두교, 불교, 신플라톤주의를 혼합한 영성이다. 이러한 혼합주의 영성의 정체를 밝히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입각한 기독교 영성을 형성해야 한다. 이러한 뉴에이지 사상이야 말로 현대판 영지주의 운동들이다.

제 3 절 대안 : 개혁주의 세계관

3-1 세계관의 필요성

3-1-1 세계관의 개념

개혁주의 영성을 위해 시급한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개혁주의 영성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기초를 세우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개혁주의 영성의 기초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관은 사람의 가치관의 기준이 되며, 신앙의 체계가 된다. 세계관이란 세계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으로서 우리가 이 세계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나름대로의 체계를 가지고 이해하도록 해주는 인식과 판단의 기본적인 틀을 가리킨다. 이원설 교수는 세계관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독일어의 Weltanschauung는 다른 말로 번역하기 어려운 낱말이다. 그것을 보는 견해에 따라 학자들은 세계관을 “삶의 정신적설계”, “신앙체계”, “사회적 가치의 총체” 또는 “지적풍토” 등으로 정의해 왔다.....본래 Weltanschauung는 단순하게 세계, 지구, 세상 등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말이 아니다. 우주의 기원을 논하는 우주관과 일맥 상통하면서도 차이가 있다. 즉 보다 더 넓고 깊은 의미에서 한 인간 혹은 한 집단이 가지는 인생관, 가치관, 사회관, 신관, 내세관 등을 종합한 신념 체계(belief system)라고 볼 수 있다.⁷⁷⁾

제임스 사이어(James W. Sire)는 “세계관이란 우리 세계의 기본적

77) 이원설, 「세계관과 문화」(대전: 한남대학교출판부, 1989), pp. 37-38.

인 구성에 대해 우리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견지하는 바 일련의 전제들(혹은 가정들)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대답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것은 (1) 근본적인 실재는 무엇인가? (2) 인간이란 무엇인가? (3) 인간이 죽을 때 무슨일이 생기는가? (4) 도덕의 기초는 무엇인가? (5) 인류 역사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다.⁷⁸⁾

혹자는 이러한 질문들이 특수한 그리스도인의 과제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또한 너무 지적인 문제라고 따질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세계관이 바르게 서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놓고 제임스 사이어(James W. Sire)는 다음과 같이 세계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나는 누구든지 충분한 지적 의식을 갖기 원하는 자는 타인의 세계관을 간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세계관도 알아야 한다고 확신한다. 즉 왜 자신이 그 세계관을 택했으며, 다른 많은 세계관 중에서도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⁷⁹⁾

즉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 기독교 세계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이 없이 바른 기독교 영성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계관은 우리의 신앙과 영성과 깊은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세계관이 잘 정립될수록 또 그 체계가 성경적일수록 개혁주의 영성에 가깝다고 할수 있다.

78) James W. Sire,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김헌수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
생회 출판부, 1985), p. 19.

79) Ibid., p. 12.

3-1-2 세계관과 영성

이처럼 세계관은 우리의 전 삶을 포괄한다. 세계관에는 인식적 차원, 정서적 차원, 평가적 차원을 가진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계관에 의해서 우리의 경험들을 해석하고, 또한 의미를 부여하며 그리고 분류하기도 하는 것이다. 어떤 누구도 우리의 신체적 눈이 없이는 세상을 볼 수 없듯이 누구도 자신의 문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얻어진 세계관이라는 내면의 눈이 없이는 체계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온전한 개혁주의 영성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정립함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또한 교정될 수 있는 것이다. 영성과 세계관은 떨어질 수 없으며, 영성의 완성은 성경적 세계관의 완성에 부여된 경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우리는 영성의 바탕에는 나름대로의 세계관이 자리잡고 있으며, 이 세계관이야말로 영성을 움직이는 기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힌두교의 영성에는 힌두교만의 세계관이 있다. 불교의 영성에는 불교의 세계관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영성에는 반드시 개혁주의 세계관이 자리잡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관을 기초한 삶 속에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경건이 함께 해야 한다. 이것이 개혁주의 영성의 모습이다. 만약 여기에 경건이 빠진다면 개혁주의 영성은 언젠가 그 생명력을 잃고 다시 신비주의 영성이나 아니면 세속적 영성으로 변질되어 가고 심지어는 타종교의 영성에 흡수되어 질 것이다.

제 5 장 개혁주의 영성과 교회성장과의 관계

제 1 절 상관성의 이유

교회성장의 원리들을 살펴볼때에 여러 가지의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교회들이 성장하는 보편적이고 중요한 요소가 영성임을 알 수가 있다. 영성이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귀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의 논리나 감정에 의해 내려진 결론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진리이다. 그러므로 교회성장과 관련하여 영성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중요성의 재인식이 목회자의 필수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통하여 그들이 깨어 있을 때 초대교회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영성훈련과 교회성장은 서로 밀접한 관계성을 가진다. 왜냐하면 영성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 영성은 교회성장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초대교회의 탄생이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되었고, 교회가 성장하여 온 것도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되어졌다.

오늘날의 교회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생명이 약동하며, 활발하게 성장하는 교회마다 영성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는 동시에 현실교회가 증명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영성은 바로 개혁주의적인 영성을 의미한다.

제 2 절 교회성장의 정의

교회성장의 이론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양적인 성장을 주장하면서 양적인 확장은 질적인 확장을 수반한다는 맥가브란의 이론과 질적인 성장을 주장하면서 구원의 의미를 개인구원보다 사회의 구조적 구원으로 보면서 개인에 대한 교회의 역할보다 사회에 대한 교회의 기능을 더욱 강조하는 호켄다이크의 이론이 있다. 전자는 대형교회를 지향한 교회성장을 지향하고 후자는 작은 교회는 아름답다고 보고 질적인 성장을 지향하고 있다.⁸⁰⁾

‘성장’이라는 의미를 창세기에서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에서 출발한다. 성장은 생명의 자연적인 원리이다. 끊임 없이 자라나야 하고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지체된 성도들은 신앙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맥가브란은 ‘건전한 성장’이란 교인들이 그 사회에서 건실하게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거룩하고 구별된 생활을 함으로써 교회들을 발전시키는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성실된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다.⁸¹⁾라고 하였다.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

80) 은준관, 「교회, 선교 교육」 (서울: 전방사, 1982), p. 27.

81) Donald A. McGarvran, 「교회성장학」 고원용 역, (대구: 보문출판사, 1979), p. 24.

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전 3:6-8) 사도바울은 복음의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것 즉, 양육의 사역을 하였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는 것이다.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므로 지속적인 성장을 요구한다. 성장은 외형적인 확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내적인 건강함을 유지하면서 외적으로도 균형을 이루며 성장해야 한다.

“제자를 삼으라”는 의미는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개인적으로 믿는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으로 양육하라는 뜻으로 볼수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장은 타교회 교인을 끌어들이거나 도시의 인구집중현상에 의한 자연적인 성장, 그리고 출산에 의한 생물학적인 성장에만 만족한다면 참다운 교회성장의 의미를 상실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제 3 절 한국에서의 교회성장

개혁주의 전통과 오순절교회의 전통이 다름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통은 각 신조의 차이에서 출발하여 강조점을 달리한다. 개혁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한다면, 오순절교회는 성령의 은사, 방언, 신유등에 큰 비중을 둔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가시적 은사의 강조로 양적인 성장에 도움이 된 것은 구태여 부인할 필요가 없다.⁸²⁾

한국교회는 또한 맥가브란의 교회성장 이론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던 것도 사실로 평가되어 온다. 맥가브란의 성장이론은 특별히 양적 성장에

82) 이복수, “개혁주의 전통과 교회성장” 「개혁주의 전통과 교회성장」 제11집 (서울: 총회출판국, 1996), p. 11.

강조를 두었는데 그는 오늘날 교회의 최상의 목표를 교회번성으로 말하며 아울러 교회의 절대적 선교사명을 ‘가능한 모든 백성에게 교회의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 강조했다.⁸³⁾ 한국교회의 성장의 관심은 바로 이러한 양적인 강조를 기울여 온 교회성장학과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성장학과의 관심이 개혁주의 전통 위에 놓여진 것으로 분석할수 없다. 문제는 개혁주의 신앙을 표방하는 교회들마저도 성장이란 과제앞에 압도되어 개혁주의의 전통을 생각해 볼 여지가 없이 주변에서 쉽게 보여지는 수단들에 익숙한 상태가 아닌가 고려된다.

한국교회의 부흥은 1907년 영적부흥운동과 전도운동 및 개교회마다 부흥 사경회를 통한 부흥성장은 대단히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1919년 3.1운동을 전후하여 교회는 큰 핍박하에 놓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외형적인 교회성장이 침체기에 접어드는 듯했으나 1945년 해방이후 1950년 6.25전란과 1953년 휴전협정은 사회적인 변이를 동반 하면서 많은 심령들로 하여금 교회로 모이게 하는 외부적인 변수로서 작용하게 되었다.⁸⁴⁾ 그리고 1955년 맥가브란이 ‘하나님의 다리’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출발된 교회성장운동은 꾸준히 확장되어 이제는 50년을 넘어가고 있다. 그러나 외적으로는 한국교회의 영적생동력, 지속적인 영적성장, 뛰어난 지도력, 모이는 열심 등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하여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줄어 들게된 한국교회의 교회성장의 정체현상은 매우 당혹감을 주고 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교회성장이 정체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근본적인것은 한국교회가 변화의 시대에 효과적인 복음전달을 위한 적응에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복

83) Ibid., p. 12.

84) 한금석, 「교회성장학」 (서울: 도서출판 성광문화사, 1992년), p. 15.

음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전달자의 잘못된 의식과 실천에 책임이 있다.⁸⁵⁾ 그러나 이 시점에서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진리의 근본이시며 세상을 유지해가는 그루터기로서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여 어두워 가는 세상을 밝히고 멸망할 영혼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곳이다. 이와 같은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다(고전 3:6-7).

교회는 교회로서 성장해야 한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결코 물량적 성공에 토대를 두는 사회적 성장이 아니고 그 신학적 내용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마땅히 성장해야 하지만 어디까지나 교회로서 즉, 신학적 실체로서 성장해야 한다.

교회는 양적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에 우선 비중을 두어야 한다. 오직 내실적(영적)으로 성장함으로써만 교회는 외형적(물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제 4 절 교회성장에 대한 개혁교회의 이해

교회성장이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많아져 교회가 증가될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서 참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여 가는 것이다. 개혁교회의 이해는 단순히 양과 질의 연합안에 있는 성장의 개념을 넘어서서 유기적이며 총체적 개념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교회가 증가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가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는 입체적 개념이 곧 그것이다.

85) 정병관, “한국적교회 성장학 시도 및제 안”, 「목회와 신학」 (서울: 두란노, 1997), p. 67.

다시 말하면 양적이며 질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사명의 폭과 질을 넓혀나가는 성장을 의미한다. 개혁주의 교회는 교회가 성장만을 위한 성장을 지향할수 없는 이해로서의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는 보다 큰 목적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 될 수 없으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관리하는 도구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봉사의 시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운반하는 도구이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병기요 표지이다.⁸⁶⁾

제 5 절 교회성장을 위한 개혁주의 영성안에 있는 요소들

개혁주의 교회는 교회의 바른 가르침으로 통하여 일어나는 변화속에 맺어지는 성숙에 관심을 기울여 온 모습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한국의 개혁교회는 현재의 성장을 위한 열심에 다음과 같은 개혁주의적 전통을 보다 뿌리내리게 하는 일에 유념해야 하겠다.

5-1 평신도를 깨움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명령으로써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였고, 그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20)고 말씀하시고, 친히 교사로서 제자들을 잘 훈련시킨 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 평신도를 양육하는 일은 시간이 걸리지만 현재 평신도를 훈련시켜 놓으면 몇 년내로 그 양육받은 평신도를 충실한 지도자로

86) 이복수, *op. cit.*, p. 13.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분업화의 시대이다. 분업화는 전문화된 것을 뜻하므로 이제는 목회도 전문화되었음이 분명하다. 교회는 필요한 교인에게도 평신도 훈련을 시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많은 평신도들을 훈련해서 교회의 자원을 잘 활용해야 교회의 기능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개혁주의 교회의 개념아래 있는 성장을 위한 중요한 과제는 평신도를 깨우는 일이다. 이것은 종교개혁의 효시를 이룬 만인 제사장에 근거한 전통이다. 이 전통은 곧 개혁주의가 전수하고 있는 전통이다.

알스톤(Alston)은 개혁주의 전통안에서 교회에 관하여 언급해야 할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다. 평신도 개인 개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특권을 누릴뿐 아니라 책임을 직접 이해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은 결국 그것의 구성원인 회원에게 주신 사명이며 구성원들의 이행을 통하여 교회가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가 성장을 위하여 평신도를 깨우는 일은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다.⁸⁷⁾ 다시말하면 평신도가 제각기 처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회속에 스며든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역을 이행하는 일이다. 이것은 개혁교회에서 말하는 유기적인 개념으로서의 교회성장을 이루는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평신도로 하여금 봉사의 사역에 참여케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5-2 교리적인 가르침의 부활

개혁주의 교회 중요한 전통중에 하나는 교리적인 가르침이다. 이 전

87)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1984), p. 45.에서 재인용

통은 회중의 믿음을 세우는데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다. 이 전통이 믿음을 세워나가는 이유는 성경안에 계시된 진리의 체계에 관한 지식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유럽대륙의 많은 개혁주의 교회들은 교리적인 가르침안에 있는 문답식교육에 계속적으로 익숙하게 세워져 왔다. 교회성장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때에 교리적인 가르침은 실로 중요하다. 성경에 계시된 진리를 체계화한 가르침 없이는 지속적 성장과 성장의 상태를 지속시키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때 버틸수 있는 믿음의 토대가 없기 때문이다.

5-3 설교사역에 대한 최상의 강도

성령은 영적으로 죽은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성장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벧전 1:23, 행 10:44, 11:15). 벧전 2:2은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자라듯이 그리스도인도 말씀을 먹음으로 영적으로 자라가게 되어지고(렘 15:16, 고전 3:1-2), 믿음가운데 든든히 서게 되어진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한 바울의 고별설교 가운데서 바울은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행 20:32)”고 그리스도인들을 믿은 가운데서 굳게 세우며 영적으로 성장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 주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들을 믿음 가운데 세우며 강하게 하는 본래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⁸⁸⁾

88) 임영효, “지도자의 영성” 「지도력개발」(고신대학교 선교대학원 강의안, 2000), p. 9.

목회자가 지녀야 할 영성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설교가로서의 영성이 중요하다. 한국교회는 지나치게 양적 성장에 몰두하므로 설교의 신학에 대한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설교가 교회성장의 수단으로 전락되어 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목회현장이 이론적인 바탕 없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올 수 밖에 없었다.

한국교회 설교는 우선 설교자의 영성과 설교신학 확립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 자신이 먼저 설교에 대한 신념과 확신, 신학적 정립을 가지지 않고서는 설교의 갱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설교자가 힘이 있고, 건전하며, 올바른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참다운 개혁주의 영성과 신학정립이 필요하다.

교회에서 설교가 자리를 잃을 때 교회는 약해지고 허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기를 소원하는 사단은 교회에서 설교가 자리를 잃어버리기를 바라고, 목사의 설교가 잘못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단은 현대의 인본주의 문화가 제공하는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교회는 그의 교활한 전략에 말려들지 않아야 한다. 주님의 교회 건설을 위해서는 세상에서 아무리 아름답고 가치 있게 보이는 것도 말씀 선포인 설교를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러기에 개혁주의 세계에서는 일찍부터 말씀의 순수한 증거를 참된 교회의 첫 번째 표지로 믿어 왔다.⁸⁹⁾

교회가 영적인 무기력에서 깨어나고, 사회가 새로운 수준의 윤리를 붙잡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단이 교회와 세상을 깨우는 외침을 회복하여야 한다. 강단에서 다시금 복음이 선포되며, 증거의 천둥소리가 울리고 능력 있는 말씀의 번개가 번쩍일 때 사회는 소망스러운 변화에

89) 허순길, 「개혁주의 설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6), pp. 7-8.

가까이 와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설교자들은 이 같은 자신의 직분과 중요성과 특권을 깊이 인식하며 설교자로서 갖추어야 할 영성을 꾸준히 계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설교자로서의 영성과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열정이 꺾이된다면 개혁주의 교회자체의 성장과 갱신은 물론이고, 한국교회의 전체의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

개혁교회의 전통엔 설교가 모든 다른것위에 있는 은혜의 수단이다. 칼빈이 설교에 대하여 아주 높이 생각했고, 그래서 그는 설교가 무엇보다도 뛰어난 은혜의 수단으로 여겼으며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은 제네바시를 변화시킬 것을 믿으면서 삼천번이상 설교했다. 개혁주의자들의 이런 정신은 종교개혁이 기독교의 역사속에 설교에 대한 가장 큰 부흥들중에 하나였다. 이런 배경위에서 개혁주의 전통은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해가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설교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개혁주의 전통안에 있는 설교와 그것의 복음적 내용위에 있는 강조는 개혁교회가 설교를 교회성장의 수단이요, 그것을 위한 과제로 이해하였음을 어려움 없이 받아들일수 있다.

5-4 기도를 통한 교회성장

“영성이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인간이 그의 전 인격의 변화와 성숙(the transformation and maturity of the character) 통하여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하였다.⁹⁰⁾ 그래서 영성의 최종목표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예수님을 더욱 많이 닮는다는 것

90) 임영효, op. cit., p. 28.

은 우리의 참된 자아로 변화된다는 것이다.

이 세상의 성장이란 잃어버린 하나님의 의와 거룩에로의 회복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원의 내용중 주요내용은 중생과 칭의와 성화이며 구원의 궁극적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의 완전한 회복이다. 이런 영적 성장의 단계는 성령으로 말미암는다.⁹¹⁾ 이런 칼빈의 구원의 내용들은 로마서 8장 29절-30절에서 말씀한 영적 성장의 내용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사역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게 하는 성령의 첫 열매인 신앙을 성도들이 소유하고 자라며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영적 성장에 있어서 기도는 필수적인 것이다.⁹²⁾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호흡으로 비유되어지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영적건강과 성장을 위하여 빼 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이다(눅 18:1, 살전 5:17). 요 16:24에서 주님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⁹³⁾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제자들에게 계속적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해 나갈 때 영적기쁨이 충만할 것을 약속하신 것은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영적성장에 필수적임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다.⁹⁴⁾

칼빈은 그의 기도론 서두에서 “기도는 신앙 훈련상 필요한 요소이며 성도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Inst. III. xx. 1)라고 말함으로 영적 성장에 있어서 기도가 은혜의 수단임을 말하고 있다.

출생한자가 자라는 것처럼 거듭난 자는 영적으로 자라야 한다. 순간

91) 권영복, “기도훈련을 통한 교회성장” (플러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79.

92) 조병두, 「영적생활의 실제」 (서울: 혜선출판사, 1986), pp. 34-35. 권영복, op. cit., pp. 79-80에서 재인용.

93) “구하라”는 동사는 현재명령형인데 계속적으로 구하라는 뜻이다.

94) 임영효, op. cit., p. 11.

적인 거듭남과 달리 평생동안 영적 생활을 통해 이뤄야 할 과제가 영적 성장이다. 우리는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고 했다. 거룩한 생활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달려 있다. 우리의 죄를 소멸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므로 점진적인 성화가 이뤄진다.

교회성장 운동의 대가인 맥가브란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장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성장을 명령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뜻대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성장을 가져다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속적인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원하신 것은 기도이다.⁹⁵⁾

또한 기도는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육신의 정욕과 이 죄악된 세상과 그리고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마6:13, 엡6:18-20) 영적성장에 있어서 기도훈련의 필요성에 대해 전가화 목사는 “기도는 하나님이 인간을 변화시키는데 쓰시는 가장 강한 방법이다. 이 기도훈련을 통하여 본능적 지배로부터 벗어나며 안일과 관습 속에 안주하기 쉬운 인간의 태만성에 각성을 주며 좀더 높은 차원의 영적 가치를 추구하게 된다”⁹⁶⁾고 말한다.

조용기 목사는 “목사로서의 처음부터 내가 깨달은 것을 나의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도 내 자신이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없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지 않고서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없다.”⁹⁷⁾고 하였다.

95) Donald A. McGarvran, op. cit., p. 238.

96) 전가화, 「진정한 영성」 (서울: 믿음의 집 출판사, 1987), p. 25.

97) Paul Yonggi Cho, 「Prayer Key to Revival」 (Waco: Word Publishing,

기도는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계속적인 기쁨, 충만한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특권적인 방편이다(시 150:3).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계속적인 기도가 중단될때에 온전한 기쁨의 상실과 영적성장의 중단 내지 퇴보현상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마7 :7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기도한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영적체험을 가질 수 있음을 강조하여 말씀하셨는데, 응답의 체험이 있는자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더욱 가까이 하게 되어지는 영적성장이 있게 되어진다(신 4:7, 시 73:17-28). 특히 눅 11:13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을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고전 12:11), 더욱 큰 은사를 주시며(고전 12:31, 14:1), 기도하는 자가 성령의 강함 임재와 능력의 역사와 성령충만을 체험하게 되어지므로 영적으로 성숙하게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⁹⁸⁾

5-5 선교를 통한 교회성장

교회성장에서 분명한 사실은 선교하는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이다. 신약교회가 놀랍게 성장한 이유는 교회의 본질을 선교에 두었기 때문이다. 베드로의 전도로 고넬료의 첫 이방인 신자가 된지 몇 년 후에 팔레스타인의 기독교는 세계의 기독교가 되는 과정을 밟게 된다. 그리고 얼마 안되어 안디옥 교회는 세계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었다(행 11:19, 30, 13:1-3).

안디옥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가는 제 3의 도시였다. 안디옥에서는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유대의 히브리어 ‘메시아’가 헬라어 ‘그리스도’라고 번역되어 사용되어졌다. “믿는 자들

1984), p. 62. 권영복, op. cit., p. 83에서 재인용.

98) 임영호, op. cit., p. 11.

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워지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행 11:26). 초대교회의 시작은 예루살렘이었지만 그 중심은 안디옥이었다.

안디옥 교회가 이처럼 기독교 교회의 선교기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이방인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받아들여지는 교회였기 때문이다. 11장 20절에 보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고 했다. 이는 후에 바울이 말한대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예수의 후사와 지체가 된” 놀라운 사건이다.

둘째로 안디옥 교회는 구제사역에 앞장선 교회였기 때문이다. 아가바의 예언대로 주후 46년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일어났을 때 30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조를 보냈다 (행 11:28-30).

셋째로 안디옥 교회는 스스로 선교의 전진기지가 되기를 힘썼기 때문이다. 예루살렘교회가 선교한 것은 핍박으로 흩어진 결과였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기도 중에 선교의도를 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한 최초의 교회가 되었다. 어쩔 수 없이 선교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헌신한 것이다. 열린교회, 사랑과 헌신이 있는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선교하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한다는 것을 안디옥 교회는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선교하는 교회의 자화상은 무엇인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는 교회의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의 지역부터 전도하는 교회이다 (행 11:20-21, 24).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 소문이 날 정도로 열심히 전도하여 수다한 사

람이 예수를 믿었다. 지역전도(local evangelism)가 확실할 때 세계선교(world mission)도 가능한 법이다.

둘째, 리더십이 확실한 교회이다 (행 11:22-26; 13:1).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영적이고 자격 있는 지도력을 지닌 교회였다.⁹⁹⁾ 이 두사람의 리더십으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 두사람외에도 세 명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데에 모든 것을 바친 진정한 리더들이었다. 리더십이 없이는 선교가 불가능하다.

셋째, 청지기적 헌신이 있는 교회이다. 사도행전 11장 27-30절은 극심한 기근의 때에,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을 보낸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임영호 교수는 안디옥 교회를 구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참으로 이 구제는 관대하고도 즉각적인 반응으로 일어난 것이었으며, 안디옥 교회를 특징지어 준 진정한 자비의 정신(the spirit of genuine charity)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안디옥 교회는 어려움에 처한 교회를 돕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재정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교회이다.¹⁰⁰⁾

넷째, 영성이 분명한 교회이다 (행 13:2). 안디옥교회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였다. 선교는 돈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주도하는 영적 분위기가 없이는 어떤 사역도 진정으로 성공할 수 없다.

특히 안디옥 교회는 성령충만한 교회였다. 사도행전 9장 17절과 13장 9절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

99) 임영호, 「사도행전에서의 선교와 교회성장」 (서울: 쿰란출판사, 2001), p. 193.

100) Ibid., p. 201.

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힘있게, 생동감이 넘쳤을 뿐만 아니라 성령충만한 공동체를 이루므로 영성이 있는 생활을 하였다.

다섯째, 사역을 위임하는 교회이다 (행 13:2). 안디옥 교회는 사명과 은사와 전문성에 따라 사역자를 따로 세우는 교회였다. 선교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이다.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선교사를 배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여섯째, 안디옥 교회는 균형잡힌 교회이다(행 13: 3). 안디옥 교회는 신자들이 다른 세 제자들을 재생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면서, 전도 (evangelism) 와 양육(edification)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고 금식하며 예배와 찬양이 있는 교회는 언제나 능동적이며 열매가 풍성한 교회일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 준다.”¹⁰¹⁾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하는 교회이다. 신생교회가 그 교회의 중심 지도자 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결정을 한 것은 믿음의 행위이다. 믿음은 기도의 산물이다. 적게 기도하면 적은 믿음을 얻지만 많이 기도하면 큰 믿음을 얻게 된다.

안디옥 교회는 비록 무명의 평신도에 의해 설립되었지만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던 최초의 선교 공동체가 될 수가 있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선교적인 모델로 안디옥 교회를 따를때에 교회는 성장하게 될 것이다.

101) Ibid., p. 197.

제 6 장 교회성장을 위한 제안

한국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계의 주목을 받는 교회를 성장하였지만 오늘날 제기되는 문제들은 올바른 영성훈련의 부재 때문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영성훈련을 통한 바람직한 교회성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안한다.

첫째, 교회는 바른신학적, 개혁주의 영성에 바로 서있을 때 주님이 기뻐하는 바른 성장을 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성령임재의 체험과 삶이 잘못된 소수의 탈선된 성령운동지도자들이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을 바른 신앙과 건전한 생활에서 떠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성령이해에 비하여 체험과 활동이 미약하고 교회의 정기집회시간에 초대교회적 성령임재의 체험을 경험하지 못해서 이에 대한 대체 심리로서 부흥회, 은사집회, 철야 기도회, 기도원 집회가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방편으로 이용되므로 성령의 역사를 빙자한 신앙의 이질적 병리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한국교계의 방향제시가 시급하며 무엇보다도 개혁주의적인 신학적이고 목회방향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둘째, 실질적 교회성장을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름으로 감격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사역자와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셋째, 교회의 질적성장을 위해서는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다. 성경과의 만남이 성령을 통해 계속적으로 이어질 때 성도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숙되어지고 교회는 성장할

것이다.

넷째, 교회가 역동적으로 성장하려면 살아있는 기도가 있어야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 받을 때 믿음이 성장된다. 믿음의 확신이 생기며 소망중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다. 작은 기도의 응답들이 모여 자기도 모르게 신앙이 자라게 된다.

다섯째,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교회안에서의 제도에 압박감을 갖고 매여서는 안될 것이나 제도를 근본적으로 탈피하려는 유혹을 경계하고 교회 질서를 위하여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세워 주신 제도를 보존해 나가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교회는 반드시 복음을 전파하여 제자삼는 재생산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이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사명이다. 성령이 임하면 복음이 전파되고 제자 삼는 사역이 계속되어진다.

한국교회의 진정한 성장은 얼마나 진지하게 자신을 절대화, 합리화 하지 않고 자기갱신을 강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한국교회가 올바르게 성장했는지 심판하는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외형적 성장이나 비대가 아니라 얼마나 비천한 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가하는 그 정도에 있다. 결국 교회의 성장과 성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을 포기함으로써 그 나라 안으로 지양되는 것에 달려 있다. 교회는 오직 기다리는 교회일 뿐이다.

제 7 장 결 론

지금까지 우리는 영성에 대한 역사와 개혁주의 영성의 특징들을 다루면서 개혁주의 영성과 교회성장과의 상관성을 살피면서 개혁주의 영성이 교회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선 ‘영성’이라는 언어자체가 연구의 어려움을 주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오늘날 영성에 대한 학자들의 입장은 각자가 서 있는 입장에 따라 다르다. 심지어 ‘영성’은 모든 종교에서 자신의 종교를 표현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언어의 혼란은 ‘영성’이라는 용어가 성경용어가 아닌데 기인한다. 오히려 성경은 기독교의 영성보다는 ‘경건’이라는 단어로 기독교의 종교적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일단 영성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전 삶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보고자 한다. 그렇지 않다면 역사가운데 있어온 영성에 대한 오해는 계속될 것이다. 특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신비주의 영성은 초대교회의 이원론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수도원과 교권을 중심으로 발전했으며, 반대로 세속주의적 입장의 ‘영성’은 오늘날 진보주의적인 해방, 민중신학을 주장하는 WCC계열에서 파생된 것이다. 결국 이들은 모두 개혁주의 영성의 전통에 서지 못한다.

개혁주의 영성은 이러한 신비주의적인 개인적 영성도 아니요, 또한 세속적인 해방의 영성도 아니다. 개혁주의 영성의 근거는 종교개혁을 통해 중세의 그릇된 영성을 바로잡은 개혁주의자들의 경건속에 묻어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건전한 지식을 깨닫고, 두려움과 신앙하는 가운데 살아온 개혁자들은 경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균형잡힌 기독교 영성을 이해 할 수 있었다.

결국 우리는 개혁주의 영성을 위해 오늘날 새로 대두되는 ‘현대 영성’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개혁주의자들의 경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개혁주의 영성을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혁주의 영성의 특징은 무엇보다 ‘계시중심의 신학’을 바탕으로 하며, 오직 은혜를 강조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지켜나가는 공동체적이고 개인적인 영성이다. 이러한 개혁주의 영성은 현실을 인정하는 내재적 경건이며, 동시에 초월성을 인정하는 성화의 영성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지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개혁주의 영성은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닮는 영성을 목표로 삼는다. 개혁주의는 개혁자들의 신앙과 경건을 무기로 바른 개혁주의 영성을 정립하고 이겨 나가야 할 것이다.

21세기에는 개혁주의 영성에 도전을 주는 2가지 사상을 다루었다. 종교다원주의와 뉴에이지 운동이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문화와 교육에 더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러한 도전에 대한 가장 시급한 대안은 개혁주의적인 세계관을 정립하는 길밖에 없다고 본다. 특히,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에 충실할 때 21세기 기독교는 그 나름의 순수성을 지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개혁주의는 개혁자들의 신앙과 경건을 무기로 바른 개혁주의 영성을 정립하고 이겨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가 세계에 유래없는 급성장을 백여년의 짧은 역사에 이룩하였다고 자랑한다. 실로 하나님께 감사할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다 신실한 주님의 교회로 나타나려면 급성장속에 있는 허실한 부분들을 살피는 일에도 책임성이 있어야 한다. 한국교회의 성장은 나이에 비하여 무척 키만 숙성한 그러면서도 너무나 여위어 있는 모습을 보는 듯하다. 여기에 성장을 위한 성장에만 강조점을 둔 개념의 영향과도 관계가 있다. 이 여윈 부분을 살찌우기 위하여 개혁주의 교회

들은 개혁주의 전통속에 있는 개혁주의 영성과 교회성장개념과 방법들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 유기적이며 입체적인 개념으로서의 성장 그리고 그러한 성장에 필요한 과제들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할수 있었으면 한다.

개혁주의 교회의 개념아래 있는 성장을 위한 중요한 과제는 잠자는 평신도를 깨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유기적 개념으로서의 교회성장을 가져오게 하기 위하여 교리적인 가르침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목회자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설교가로서의 영성이 중요하다. 한국교회의 성장은 영성훈련이 밑거름이 된 성장이었다. 영성훈련의 구체적 영향으로는 기도와 전도의 철저한 훈련으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생기를 찾게 될 때 급속한 교회성장이 이루어졌다.

교회성장의 모델로 안디옥 교회를 제시하였다.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평신도들에 의해 세워진 전도와 양육을 통한 균형있게 성장하며 증거하는 교회였다. 특히,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영성있는 지도력을 지닌 교회였으며 무엇보다도 성령의 주도하에서 최초의 선교공동체가 되었다. 안디옥 교회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성장과 선교를 위한 좋은 모델을 제시해 주고 있다.

교회성장과 영성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교회성장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소원이며,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고, 성도가 땅위에 머무는 목적이다. 영성훈련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방법이고, 성경적이라는 것이다. 성경에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고,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모든 영적인 삶들이 교회의 현장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

교회성장을 가능케 했던 영성이야말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종교 혼란의 시대인만큼 개혁주의 교회

는 ‘개혁주의 영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독특한 영성을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작업에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개혁주의 영성을 확립함으로 말미암아 참다운 교회부흥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가. 국내문헌(단행본)

김영한, 「21세기와 개혁신학(I, III)」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김재성, 「칼빈과 개혁신학의 기초」 (서울: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1997).

문상희, 「목회의 전문화와 영성」 (서울: 연세대출판부, 1984).

송인규, 「영성에의 추구」 (서울: IVP, 1991).

안영권, 「팔복의 영성」 (서울: 도서출판 진흥, 1998).

이원설, 「세계관과 문화」 (대전: 한남대학교출판부, 1989).

임영효, 「사도행전에서 의 선교와 교회성장」 (서울: 쿤란출판사, 2001).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1984).

은준관, 「교회 선교 교육」 (서울: 전망사, 1982).

전가화, 「진정한 영성」 (서울: 믿음의 집 출판사, 1987).

한금석, 「교회성장학」 (서울: 성광문화사, 1992).

한성기, 「오늘의 신학과 내일의 신학」 (서울: 잠언, 1997).

한인수, 「경건신학과 경건운동」 (서울: 도서출판 경건, 1996).

허순길, 「개혁주의 설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6).

_____, 「뉴에이지」 편집부 편,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2).

나. 외국문헌(단행본)

Anthony A. Hoekema, 「개혁주의 구원론」 류호준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Bradley P. Holt, 「기독교 영성사」 엄성옥 역, (서울: 은성, 1996).

David Bentley-Taylor,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본 신앙」 김원주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5).

Donald A. McGarvran, 「교회성장학」 고원용 역, (대구: 보문출판사, 1979).

Donald 매김 편저, 「칼빈신학의 이해」,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1).

Howard L. Rice, 「개혁주의 영성」 황성철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Iris. V. Cully, 「영적성장을 위한 교육」 오성춘, 이기문, 유영모 역,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출판부, 1986).

James W. Sire,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김현수 역, (서울: IVP, 1995).

John Calvin, 「기독교 강요」 한철하 외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7).

John Calvin, 「칼빈성경주석 7」 (서울: 존 칼빈성경주석출판위원회 역편, 성서교재간행사, 1979).

Joseph Richard, 「칼빈의 영성」 한국칼빈주의연구원 편역, (서울: 기독교문화협회, 1997).

Nelson S. T. Thayer, 「영성과 현대목회」 이윤복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2).

마크 C. 올브렉크, 「뉴에이지 운동과 환생」,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Peter L. Berger, 「종교와 사회」 이양구 역, (서울: 종로서적, 1981).

Stanley J. Grenz, 「20세기 신학」 신재구 역, (서울: IVP, 1998).

다. 논문(집)

권영복, “기도훈련을 통한 교회성장” (플러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성희, “청소년의 영성훈련과 회심에 관한연구” (대전: 목원대학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류길환, “통전적 영성이 목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라. 정기간행물

김외식, “기독교 영성의 바른 이해” 「신앙계」 (1986년 4월).

박종수, “불교의 선과 기독교의 영성” 「종교와 영성」 (서울: 도서출판 한들, 1998).

박해령, “구약성서의 영성이해” 「기독교신학과 영성」 (서울: 솔로몬, 1995).

안영권, “기독교 영성이란 무엇인가” 「목회와 신학」 (서울: 두란노서원 1993년 10월).

이복수, “개혁주의 전통과 교회성장” 「개혁주의 전통과 교회성장」 제11집. (서울: 총회출판국, 1996).

이양호, “종교개혁자들의 영성” 「기독교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8년 4월호).

이장식, “오늘의 영성의 사적 고찰” 「오늘의 영성신학」 (서울: 양서각, 1988).

정병관, “한국적교회 성장학 시도 및 제안” 「목회와신학」, (서울: 두란노, 1997).

차준희, “구약의 영 이해” 「성경과 신학」 제20권 (1996년 10월호).

한정애, “교회사와 영성” 「기독교신학과 영성」 협성신학연구소 편, (서울: 솔로몬, 1995).

황창기, “신약 ‘경건’의 기독교론적 이해” 「고신신학 2」 (부산: 고신

신학회, 2000).

홍치모, “영성운동의 역사적 고찰” 「목사계속교육강의집: 성령과 영성 (제7권)」 (서울: 유니온 학술자료원, 1990).

마. 기타

임영효, “지도자의 영성” 「지도력개발」 (고신대학교 선교대학원강의안, 2000).

The Heidelberg Catechism,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신헌재 역, (서울: 할렐루야 서원, 1991).